대학내일

ISSN 2465-7883

NO.760
2015.11.30
~2015.12.6
www.univ20.com

Weekly Choice

ㅇㅈ세대의 자존감 회복법

그동안 힘들었지? 인정?

+

CULTURE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응답하라 1988〉 정팔이를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

INTERVIEW
JTBC 김필규 기자
당신이 오늘 본 뉴스
모두 팩트인가요?

GEEK
영화감독 이길보라
낯선 세계 한가운데
반짝이는 나의 세계

내일신문

5분만에 완성하는
알바몬 간편이력서 런칭!

알바 이력서에 학력이
꼭 필요한가요?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없어요 ..

간단하게 나를 어필하는
이력서는 없나요?

그 동안 이력서 쓰기 막막하셨죠?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가볍게 쓸 수 있는 '간편이력서'**가 탄생했습니다.
무슨 일을 원하고, 어디에 자신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작성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OK!

알바몬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알바몬앱 검색!

알바몬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m.albamon.com 입력

청춘, 뱁을 달자
albamon

청년취업인턴제

www.work.go.kr/intern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인턴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우수한 인재확보를 원하시는 사장님!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제2회 제주항공 Refresh 마케팅·광고 공모전

공모주제

전략 부문
- 대학생 FIT여행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생 마케팅 전략 제안 (항공권 구매처, 여행 계획 시기 등)
- 제주항공을 이용한 제주 여행 시, 대고객 마케팅 차별화 전략 제안 (고객 혜택, 여행 정보 제공 등)

전략 부문 제출형식
PPT 형식으로 30매 내외(FONT 포함)

인쇄·영상 부문
- 제주항공의 취항노선 홍보를 위한 광고 시안 (일본,중국,동남아,대양주 중 임의로 택1)

인쇄·영상 부문 제출형식 ※공모전 본선 진출 시에는 작업 원본파일 제출
PPT 형식으로 10매 내외(FONT 포함)
인쇄광고 A3 기준 / 동영상 광고(500MB이하)

공모대상
전국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 중인 군복무자,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학생 참여 가능(팀 : 3인 이내)

심사방식
예선 심사 : 마케팅 전략안 및 광고 시안 심사
본선 심사 : 현장 프레젠테이션 진행

시상내용

구분	시상자	시상내역
대 상	1팀	상금 300만원, 상장, 상패, 국제선 왕복 항공권, 인턴십, 입사 특전(서류면제+면접 가산점)
최우수상	1팀	상금 200만원, 상장, 상패, 국제선 왕복 항공권, 입사 특전(서류면제)
우 수 상	2팀	상금 100만원, 상장, 상패
장 려 상	3팀	상금 50만원, 상장, 상패
입 선	본선진출자	상장, 러기지 벨트/ 여권케이스(기타 판촉물)

※ 접수자 전원 제주항공 국제선 이용 할인 쿠폰 지급

진행일정

1차 예선 과제물 접수	:	2015년 11월 23일(월) ~ 2016년 1월 6일(수)
1차 예선 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13일(수)
2차 본선 경쟁 PT 및 시상	:	2016년 1월 20일(수)
인턴십 진행	:	하계 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협의 후 진행)

세부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www.jejuair.net/competition)에서 확인

대한민국 No.1 LCC
JEJUair

2015 LOTTE 공모전
+ YOUR IDEA

www.lottecontest.com

KEYWORD

IDULTRAVEL

SNSMART

SILVER

PHONE

DY

UNICATION

FASHION

GLOB

주제

+ YOUR IDEA

롯데그룹 계열 1개사와
제시한 키워드를 조합해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

자격

누구나 지원가능
개인 or 팀(최대3인)지원

19th Nov. 2015
~
7th Jan. 2016

접수 · 문의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www.lottecontest.com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사무국
Tel. 02-735-9540

시상

대상 500만원 / 총 1팀
금상 300만원 / 총 21팀
은상 200만원 / 총 21팀
동상 100만원 / 총 21팀

* 채용 우대사항
* 신입공채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or
인턴십 지원시, 인턴십 기회부여

LOTTE

Weekly

Editor 이민석 min@univ.me
Photographer 김재윤 Ultra Studio
Hair & Makeup 정현영

Cover Model

Weekly
interview

전희경
동덕여대 모델과 12

Canon

덤벼라!
다 뽑아주마!

끝없는 대학 과제엔

캐논 무한 잉크젯 G-Series

캐논 무한 잉크젯 G-Series

더 오래 쓰는 무한 잉크젯

흑백 6,000매 / 컬러 7,000매 출력 가능 (7,000매 = A4 14권 분량)

* 출력매수는 잉크 완충 시 기준으로 출력물에 따라 출력매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컴팩트한 무한 잉크젯

빌트인 잉크탱크 디자인으로 공간활용도 우수

G3900(와이파이 복합기)/G2900(복합기)/G1900(프린터)

고객센터:1588-2500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 www.canon-bs.co.kr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실제 성격이 궁금하다.

겉모습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낯을 가리긴 하지만 친해지면 엄청 활발해진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도, 알면 알수록 정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나에게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델' 전희경의 매력은 무엇인가?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하나? 평소에는 베이비 페이스 혹은 깨끗한 이미지인데, 사진을 찍을 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하얀 도화지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빈 도화지에는 여러 색을 채울 수 있듯이 내 얼굴에도 어떤 스타일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풍기는 느낌이 다양하게 변한다.

Innovate the News, the New

대한민국 뉴미디어 선도대학

SMIT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2016학년도 전기 신·편입 모집

모집대상 석사학위과정 (야간)

모집전공 뉴미디어경영학과 (경영전공/디지털정부전공)
뉴미디어콘텐츠학과 (예술전공 / 공학전공)

장학금혜택

X-Program 2.0 참여자에게 조교 장학금 지급.
SMIT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나눔 장학금등 다양한 장학혜택 부여.
재학 중 성적 우수자 및 탁월한 연구 실적이나 논문을 발표한 학생에게 해외 학회 참가 기회 부여.

원서 접수 : 홈페이지 www.smit.ac.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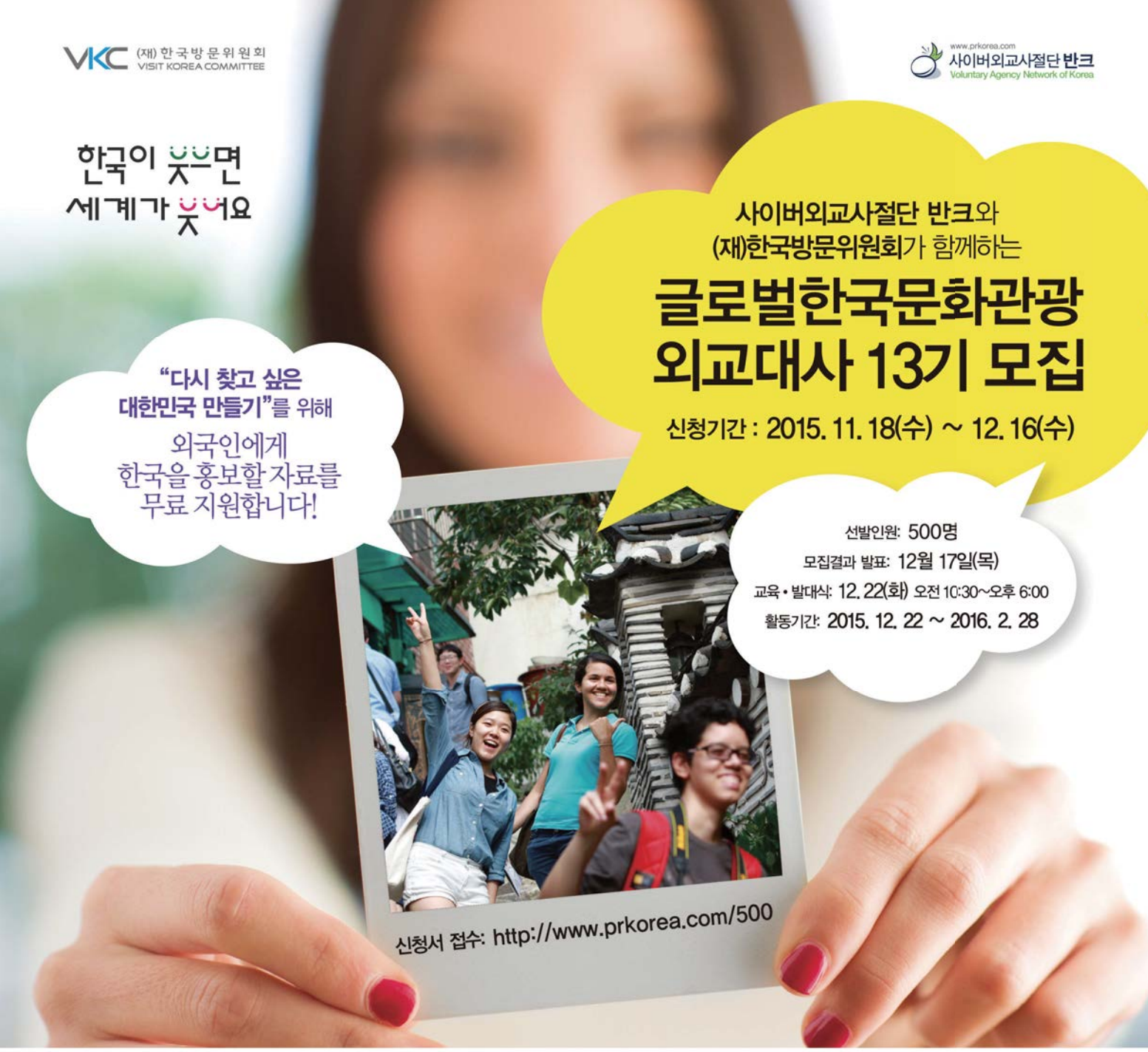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요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모델 일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표현하고 싶어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연기를 하면서 발성이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연기에 필요한 발음이나 목소리 톤을 바로잡는 게 어렵다. 특히 목소리 톤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안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직까지는 모델이 계속 하고 싶고 이 분야가 너무 좋지만 살면서 느낀 건, 꼭 계획한 대로만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가는 길에서 우연히 다른 분야에 매력을 느낀다면 그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사는 인생,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며 살고 싶다.



해외 여행길에 외국의 세계지도, 교과서, 드라마, 관광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해는 일본해, 독도는 다케시마,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표기된 오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드라마는 한국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관광책자 속 한국문화 소개 분량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10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인에게 한국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가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수조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외교관 또한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재)한국방문위원회는 올 겨울, 해외여행 및 연수를 떠나는 대학생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우리의 친절과 미소로 K스마일을 실천하여 한국을 홍보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5백명을 선발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 청년들의 열정으로 한국의 매력과 한국인의 정을 널리 알려 전 세계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요!

행사대상

- 2015년 겨울방학 중 외국에 방문하는 한국의 대학생,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을 홍보할 대학생

지원내역

- 1차 발대식 참석자 :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250명
  한국홍보자료 킷트, 반크 도서, 한국홍보 비법교육, 티셔츠, 교육참가증
  1차 발대식 미참석자 :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250명
  반크 꿈날개 한국홍보자료 킷트
- 2차: 최고의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50명 선정
  (2016년 3월 중)
  (500명 중 우수 활동 대사, 선정기준: **활동 후기 심사**)
  반크와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상장**, 메달, 기념품 수여

신청서 접수 : http://www.prkorea.com/500

문의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02-921-3591

공동 주최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재)한국방문위원회

반크 꿈날개 한국홍보자료 킷트 구성

※킷트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세계지도 무궁화 지도

한국홍보 3단 카드 액자엽서

다음 표지모델이 되고 싶다면?

covermodel7@naver.com
으로 지원하세요.

동원 글로벌 익스플로러 5th

동원 글로벌익스플로러 2016 대원모집

지도를 거꾸로 보아라!
세계로 나아가라!

모집일정

- **모집대상** 대학생-국내소재, 국내 국적 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불가)
- **모집인원** 15팀(2~4인, 자율구성)
-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6. 3. 16(수)~2016. 3. 22(화)
  서류심사발표 : 2016. 4. 12(화)
  본선면접 : 2016. 4. 29(금), 2016. 4. 30(토)
  최종발표 : 2016. 5. 18(수)

탐험활동

- **탐험지역**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內
  1대륙 1개국 이상
- **탐험주제** 팀원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팀단위의 구체적인 탐험 계획
- **글로벌익스플로링** 7월 한달 중 13박 14일
- **지원사항** 항공권, 체류비 등 소정의 활동비
- **탐험 후 시상** 장보고상 300만원
  열정상, 도전상, 창조상, 글로벌상 각 100만원

BACK TO DREAM 공개설명회

- **부산 I**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 2층 소민홀
  일시 : 2015. 12. 8(화) 11:00~12:00
  참가인원 : 선착순 100명
- **서울 I** 장소 : 동원그룹 양재동 본사 20층 강당
  일시 : 2015. 12. 12(토) 16:00~17:00
  참가인원 : 선착순 100명

※신청방법 http://goo.gl/forms/NTwYEfYBxt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dongwonge.com

주최 Dongwon 동원육영재단 협찬 Dongwon 동원F&B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mog

Contents

2015.11.30~2015.12.6

Start

18 PLACE
그들 각자의 영화관

20 COVERMODEL'S BEAUTY
이주의 모델 전희경씨의 뷰티 아이템

22 TOON
기망갤러리

24 LOVE TALK
잠자리만 잘 맞는 여자, 계속 만나도 될까요?

28 SPEEDWAGON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30 OUT CAMPUS
협동심을 쌓는 공모전 BEST4

36 SCENE #1
풍선껌

37 QUESTOON
썸남

38 CULTURE CRITIC
대중없는 시상식

40 PICK UP
오, 나의 악당!

44 ISSUE
ㅇㅈ세대의 자존감 회복법
그동안 힘들었지? 인정?

49 CULTURE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덕선이와 정팔이를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

54 PICTURE
네가 좋아할지도 너를 떠나게 해줄지도
지도, 어디까지 만나봤니?

56 UNIV20.COM
홀리데이 컬렉션
여친 선물 고르는 게 어려운 당신, 필독하라!

58 UNIV20.COM
폭풍 침샘자극 문학 6선
1분 만에 당신을 배고프게 할 문학 속 음식 이야기 (feat. 야식 소환)

60 WEEKLY STYLE
머플러 LOOK

62 GEEK
영화감독 이길보라
낯선 세계 한가운데 반짝이는 나의 세계

64 INTERVIEW
JTBC 김필규 기자
당신이 오늘 본 뉴스 모두 팩트인가요?

68 THINK
네가 싫어하는 것들이 너를 말해준다

74 20'S VOICE
디지털 시대의 이별

82 ASK ANYTHING
무서움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nd

Ajou ? Greative
아주인의 일곱가지 약속

AJOU GREAT TURNING

1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더 이상 배우지 마라!
사치다.[1]

2 잡초처럼 짓밟혀라!
바람이 일으켜 준다.[2]

3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무시 당하라!
그러면서 거인이 되어간다.[3]

4 성 안의 고고함을 동경하지 마라!
세상은 언제나 저잣거리에서 일낸다.[4]

5 세계는 스펙국제화가 아니라, 마인드국제화로 통한다.
Act Now![5]

6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어라!
어울림이 큰 울림이다.[6]

7 사소한 것에서 위대함이 나온다!
아주 작은 씨앗이 우주를 품듯이.[7]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시작합니다

creative for great
GREATIVE
괴짜같은 진짜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것이 GREATIVE다
바르게, 다르게, 크게-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수, 재학생, 졸업생들이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그린라이트>
시그래프 2015 출품작

2016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정시모집 10/14(수) ▶ 10/30(금) 수시모집 11/30(월) ▶ 12/21(월) 031-219-2302~4 grad@ajou.ac.kr http://grad.ajo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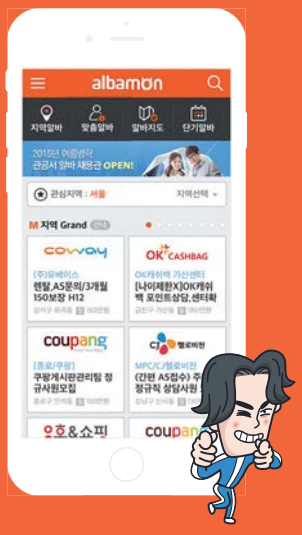
1 최고의 '자기주도형 연구/학습 체계' 개발 2 '도전학기제'로 자신감 넘치는 큰 인재를! 3 21세기형 리더의 소통 프로그램 4 판교-광교-기흥-동탄-영통 산업벨트 중심의 산학협동 5 '애프터유 글로벌캠퍼스' 등 컨셉형 국제화 프로그램 6 LAC 등 융복합 교육의 메카 7 대학을 바꾸는 대학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 2016년 2월 개통 신분당선 _ 강남역 28분

*이 광고는 아주인들이 직접 만든 광고입니다

알바 끝판왕

알바몬 앱



다양한 알바 찾기

간편한 이력서 작성

편리한 알바 지원

개인맞춤 알림메시지

albamon

STAFF

발행 · 편집인 장명국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이사 김창배

콘텐츠팀
팀장 이정섭

디지털미디어파트
에디터 홍승우 조웅재 김혜원 김진완 김효은 백수빈 양주연 강민상
디자인 김지현 유승서
서비스 기획 김가언

매거진파트
편집장 전아론
에디터 김신지 기명균 김슬 이민석 조아라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파트
팀장 김해정
디자인 남미가

브랜드저널리즘파트
편집장 정문정
에디터 김초롱 박정욱 주태환 김수현
디자인 이승은 조세진

학생리포터
기획팀 곽민지 남세현 신채라 최효정 권성한 김선화 윤소진 임기훈
문화팀 공태웅 김송미 김유진 배대원 임현경
사진팀 배수민 오주석 이초원 조혜미 최진영

프리랜서 김기형 전하은

20대 커뮤니케이션 본부
본부장 이태영
책임에디터 신청

20대 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김지혜
매니저 유리나 신예지 박미소 김예림
사원 송태광 조하니 이혜인 손유리

20대 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매니저 김영현 신현정 이지연 홍보미 육혜진 김민정 이재우
에디터 황혜원
사원 한희진 백소연

20대 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김부진
매니저 안길상 문왕기 조소라 나현아 허이슬 손기석 권오태 김동하

20대 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이성진
수석 정진현
책임매니저 김동주
매니저 신가은 양상범 명범준 박정은 송승화 홍선아
사원 손혜지 박상헌

HR PRO팀
팀장 김종원
책임매니저 박준하 유제문
매니저 최규성 유진혁 홍성우 신재영
사원 김형민 이준호 서창호 정기현 김정석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책임매니저 진우경 강국현
매니저 김민아
사원 박윤희 이상엽 송정훈 허은주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수석 이혜정
책임매니저 김현승
매니저 남승혁 박종남 강희은 이성진 우병조 김채현 조현상 이상복 정진복 서준원 전단비
사원 김찬우 한동주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책임매니저 이교영 이진희
책임에디터 임영화 김효선
매니저 유호정 권가람 권예빈 장현주 양준호 홍새봄 이연제 박지성
사원 김규태 김다은 김애리 김민주 임이슬 김동규 김경민

마케팅전략본부
본부장 김창배
팀장 박배길 탁귀영 이동선
수석 이수이 박지호 황정은
책임매니저 이수지
매니저 최진성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책임매니저 김부록 하윤희 고은영 강주빈
매니저 김상호 이은주 윤태형
사원 박혜진

20대연구소
소장 박진수
수석연구원 김영기
책임연구원 호영성 문송이 송혜윤
연구원 이재흔 임희수 탕예
사원 임다정
자문위원 신익태

SNS전략제안연구소
소장 정은우

기획지원파트
책임매니저 이윤경 방수진
매니저 윤정심

인재경영팀
팀장 박진수
책임매니저 조은주
매니저 김이슬 김예지

재무팀
팀장 김운선
수석 김소연
책임매니저 박옥인
매니저 김주은

인턴 김유진 황주랑 장미희 김소영 황미나 배준현 김성영 김주리 김선아 김은미 박슬기 배용근 송성일 송은영 오선정 이소정 이현승 전희은 전혜원 정희성 조용희 전계은 방소현 한은지 김원영 허소윤 위지영 손수민 유아연 정지영 최효정 전효경 박찬호 김현중 엄지훈

마케팅리베로 김경진 김나래 김나영 박민준 윤길주 이혜수 정다은 최은진 송준한

유니파일러 고연주 김민지 김예아 박예슬 박하연 정원우 하유정

인쇄 프린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www.naeilshot.co.kr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2015 4분기

(주) 대학내일

대학내일 경력사원 수시채용

2015. 11. 23 — 12. 06

유스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대학내일과 함께할 경력직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기간 및 전형과정

2015.11.23(월) - 12.6(일) **23:59**까지

온라인 접수 › 서류 심사 › 실무/인성 면접 › 채용 확정

지원 방법

㈜대학내일 홈페이지 **corp.univ.me/recruit** 에서 온라인 접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대학내일 홈페이지 내 1:1문의 게시판 이용

모집 분야

채용부서	담당업무	인원	최소 경력	우대사항
20대커뮤니케이션 본부	캠페인/프로모션	0명	3년	마케팅 기획/실무 대행사 근무 경험자, 오프라인 대형 프로모션 PM 경험자
	매거진 기획 및 에디팅	0명	3년	애드버토리얼 및 단행본/매거진/사보 제작 실무 경험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SNS 콘텐츠 기획 및 에디팅	0명	2년	SNS 콘텐츠 기획 PM 경험자, 미디어/매거진 에디터 실무 경험자
이비즈팀	웹기획	0명	3년	C#, NET 기반 솔류션 개발 5년이상 경력자 요구기술 ASP.NET MVC, Web Api, C#,PHP , Script, MS-SQL 그룹웨어 솔루션 개발경력자(전자결재) SNS 서비스 기획 실무 숙련자 우대 신규 SNS 플랫폼 기획 희망자 우대
	웹퍼블리싱	0명	3년	최근 2년 이내 대형 프로젝트 실무 경험자 jQuery 및 Script, html5/CSS3 숙련자
	웹개발	0명	5년	Framework 개발 실무 경험자 asp.net, php, 전자결재 숙련자 신규 SNS 플랫폼 개발 희망자 우대

대학내일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rp.univ.me**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그들 각자의 영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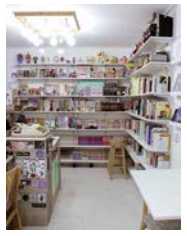
캄캄한 극장이 답답하다면, 집에서 다운 받아 보는 게 지겹다면.

슬로스텝

추억은 방울방울

〈무한도전〉에서 하하와 10cm가 음반 작업한 곳을 기억하는가? TV 속 모습처럼 널찍한 야외 테라스의 한가운데 영화관이 아니면 흔히 볼 수 없을 커다란 스크린이 있다. 실내에는 작은 스크린이 앙증맞은 자태로 관객을 기다린다. 살펴보니 어릴 적에 자주 보던 애니메이션이다. 초보 마녀 키키, 천공의 성 라퓨타 등…. 카페 안 사람들은 잠시 수다를 미뤄두고 옹기종기 둘러앉아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이 카페에서는 영화보다는 주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데, 이유는 하나다. 누구에게나 동심은 있었으니까. 나도 몰래 추억에 젖다보면 마법처럼 아이가 될지 모를 일이다. 이외에도 스크린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문의를 통하면 연극 홍보가 가능하단다. 대학로가 살아야 카페도 산다는 사장님의 넉넉한 마음씨가 느껴진다. 로맨틱한 프러포즈의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둘만의 추억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엮어낸 영상 편지가 스크린에 흐르면, 당신의 연인은 감동적인 멜로 영화를 본 것처럼 폭풍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Reporter 김선화 tjsghk0648@naver.com Photo Reporter 오주석 govl603@naver.com



ADD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62가길 8 1층

TEL
010-2740-8687

PRICE
아메리카노 3000원
각종 잎차 3000원

ADD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89 3층

TEL
02-762-2229

PRICE
블루베리 요거트주스 6500원
야생 복분자주스 7500원

홀리데이 아방궁

미지의 영화와 만나는 곳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혹은 다른 이의 취향에 귀 기울여 보고 싶을 때, 응봉역 부근에 위치한 '홀리데이 아방궁'을 방문해보자. 독립잡지 「The Kooh」의 편집장이기도 한 주인이 최근 문을 연 이 공간은 카페인 동시에 독립출판물 서점인데,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극장으로 변신한다. 상영되는 영화는 매주 랜덤. 주인의 취향과 그날 방문한 손님들의 취향을 취합해 3~4개의 후보작 중 하나를 골라 관람한다. 다큐멘터리 〈잉여들의 히치하이킹〉부터 89년도에 나온 SF영화 〈엑설런트 어드벤처〉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영화들 중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다. 5~6명이 최적 관람 인원이라는 아담한 공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 입맛이 동하면 그 주의 영화에 등장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뒤풀이를 하기도 한다. 처음 본 영화는 궁금해서, 이미 본 영화는 반가워서 보게 된다는 마성의 이벤트. 방문 의사가 생겼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The Kooh'를 통해 신청하시라.

Reporter 김유진 kyj379@naver.com Photo Reporter 최진영 jinyoung4340@hanmail.net

카페 포엠 수요일에 만나요

카페 포엠 입구에서 '수요극장'이라 적힌 팻말을 만난 건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지하 공간 올스퀘어에서는 매달 테마를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영화를 선정해 수요일마다 상영한다. 매월 테마는 '치명적인 단발머리', '홍차 맛 나는 로드무비' 등 재치가 돋보이는데, 11월의 테마는 '센 남자들'. 그날은 빗줄기도 무색해질 만큼 강렬한 영화 〈13구역〉을 상영 중이었다. 우아한 머그에 담긴 차로 몸을 녹이며, 정통 파티쉐의 케이크를 한 입. 달콤함이 사라지기 전에 영화도 한 입. 영화를 보러 온 손님에겐 작은 그릇에 뿌듯하게 팝콘까지 담아 내어준다. 영화를 보고 나와도 여전히 영화 속에 있는 것 같다. 카페 포엠은 각 층마다 다른 음악과 미술 작품, 인테리어 소품으로 채워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영화 세트장을 오가는 배우가 된 기분이다. 커피부터 음악, 미술, 영화까지.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카페 포엠에서 우리, 수요일에 만나요.

Intern 위지영 hi_wjy@univ.me Photo Reporter 배수민 baetographer@gmail.com

ADD
서울 마포구 백범로28길
17 늘장

TEL
02-2632-5800

PRICE
드립커피 3500원,
밀크티 4000원,
리얼초코라떼 4000원,
크림치즈크래커 3500원

ADD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3-11

TEL
02-706-6024

PRICE
아메리카노 5500원
푸르츠루즈핫초코 7500원
망통 케이크 7500원

늘씨네 언제나 그 자리에 늘 있네

〈늘씨네〉는 빌딩이 빼곡하게 자리 잡은 공덕역 근처의 오아시스다. 일에 찌든 주변 직장인들이 하루의 피로를 술로 풀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한다.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가지런하게 담은 모양의 건물은 몽골 유목민의 전통 주택 '게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 유랑하는 마음을 안고 이 공간 안에 들어서면 큰 스크린이 가장 먼저 반겨준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스크린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만 알고 싶은 비밀스러운 공간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늘씨네〉는 주변 직장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소규모 영화 도서관을 표방한다. 개인 노트북을 가져오면 책장에 꽂혀 있는 빼곡한 DVD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문화 예술 분야의 인사들이 직접 고른 영화를 함께 보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 '늘씨네와 벗들'도 진행하고 있다.

Reporter 권성한 freedom_han@naver.com Photo Reporter 최진영 jinyoung434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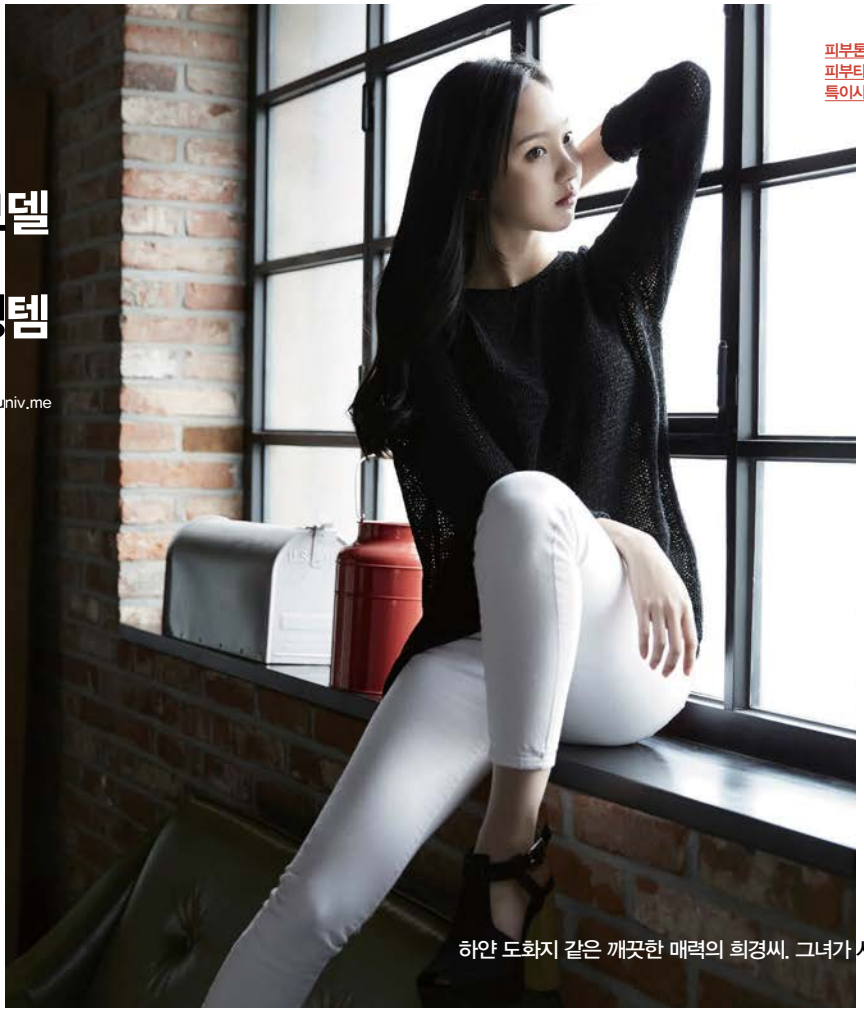
Weekly:

covermodel's beauty

피부톤 쿨 톤
피부타입 건성 피부
특이사항 뽀루지가 잘 올라온다

표지모델 인생템

Editor 이민석 min@univ.me



하얀 도화지 같은 깨끗한 매력의 희경씨. 그녀가 사랑하는 인생템 네 가지.

Beauty Item ▸▸▸

① 센카 퍼펙트 휩 클렌징 폼

시세이도

이 제품은 쓰자마자 바로 느꼈다. '인생템이구나!' 피부가 건성에다가 세수만 하면 붉어지고 당김 현상이 심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 엄청 순하고 거품 낼 때 부드러운 느낌이 최고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가격 8900원.

② 내추럴 스파 워터 로션 라이트

차노시오야

나는 등 쪽 피부가 특히 예민하다. 간혹 여드름이 나고 따가운 옷을 입으면 금방 반응을 한다. 지인의 추천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는데 샤워하고 나서 매일 꾸준히 뿌리고 나니, 따가운 느낌도 없어지고 피부 자체가 순해지는 느낌이다. 가격 3만 9800원.

③ 아보카도 립밤

스킨푸드

겨울이 되면 입술이 자주 트는 편이다. 평소에 좋다고 소문난 제품들을 써봐도 효과가 딱히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난 뒤 놀라운 속도로 입술이 촉촉함을 유지하게 됐다. 촬영하기 전날 밤에 항상 바르는 제품이다. 가격 4900원.

④ 맥 칠리 립스틱

MAC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주로 입술에만 포인트를 준다. 피부가 하얀 편이라 레드, 핑크 계열의 립 제품이 잘 어울린다. 그중에서도 특히 레드 계열이 얼굴에 잘 받는데 이걸 바르게 되면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가격 2만 9000원.

가입문의 | olleh폰 114(무료), 일반전화 1588-0010(유료), WWW.olleh.com

Toon :

[미대생에 대한 오해]

김양 갤러리

글/그림 김양

색(色)다른 수업, 색(色)다른 미션으로 가득한 뜨거운 겨울방학을 함께할

듀렉스 트렌더즈 6기를 모집합니다!

트렌더즈 6기 제공 혜택

1. 개인 활동비 지급
2. 우수 활동자 상금 지급
3. 팀장 리더쉽 지원비 지급
4. 차별화된 성교육 커리큘럼
5. 다양한 마케팅 활동 기회
6. 트렌더즈 6기 수료증 지급

트렌더즈 6기 모집 일정

- 모집 : 2015년 11월 18일(수) ~ 2015년 12월 06일(일)
- 서류합격 발표 : 2015년 12월 9일 (수)
- 면접일 : 2015년 12월 15일 (화)
- 최종합격 발표 : 2015년 12월 16일 (수)
- 발대식 : 2015년 12월 18일 (금)

트렌더즈 6기 활동 안내

▶지원자격
- 팀원들과 협동하여 건강한 성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싶어요!
- 밝고 건강한 사랑과 성(性)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요!
- SNS 이해도가 높고 활동이 활발해요!
- 매 주 1회 정기모임(서울지역) 참석이 가능해요!

▶활동기간 : 2015년 12월 21일(월) ~ 2016년 2월 26일(금) (총 10주)
▶모집인원 : 35명

트렌더즈 6기 지원 방법

Durex Korea Facebook 접속
www.facebook.com/durexsouthkr
▶
'페이스북 좋아요'클릭 후
Durex Trenders 6기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서 다운로드
▶
durexkorea@naver.com
지원서 전송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과 장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 트렌더즈 모집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durexkorea@naver.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ditor 이민석 min@univ.me

Love Talk

이걸 답해줘?
싶은 것도 다 해드립니다 ^^

3人인 3色색 댕낼 연애 상담소

댕낼 연애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한 사연, 야한 사연, 야한 사연…
안 야한 사연 다 받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드루와~

이주의 사연

26세, C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만나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잠자리도 갖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통화도 하니 거의 연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식 고백'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잠자리를 갖는 건 정말 즐겁습니다. 잠자리 실력(?)은 제가 만나본 여자 중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제외한 다른 것들은 함께해도 크게 즐겁지가 않아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상대방과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도와줘요, 대학내일!

보수파 패널

베일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여자

카사노바는 한평생 즐거운 성생활을 누렸습니다. 한 작가가 쓴 카사노바 평전을 보면 그의 여자들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여자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즐기다가 무사히 남편이나 다른 애인에게 돌아갔죠. 비결은 이겁니다. 깊은 사랑에 빠지지도, 빠뜨리지도 않는 것. 즉 '표면적인 사랑'이 관건이죠. 좋은 결말을 원한다면 두 분은 단지 '감각적인 모험'만을 즐기는 사이여야 해요. 만약 의뢰자님이 '즐거움'도 얻고 싶고, 상대 여성의 '사랑'과 '존경',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이란 평판까지도 얻고 싶다면 결론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막장으로 치닫겠죠. 카사노바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장점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만남이 가져올 허무함과 불행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Editor 조아란 ahrajo@univ.me

중도파 패널

크고 아름답고 단단합니다. 멘탈이요.

감정적인 교감이 매우 부족함에도 잠자리가 완벽하다라. 엄청나게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몸과 마음은 한 방향을 바라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두 분의 케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드러난 팩트네요. 근데 C군은 지금 그녀와 진지하게 만날지 안 만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로선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섹스 말고 맞는 게 없는데 진지하게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섹스를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안 맞는다고 느낀다면 아마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C군이 '정식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진지해질 거라는 오만은 버리세요. 단칼에 거절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혹시 그녀에게 '트루 러브'를 빙자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나쁜 XX!'란 말밖에 해드릴 게 없고요. 지금의 관계가 서로 합의가 된 거라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좋은 게 있다면 우선 만나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Editor 이민석 min@univ.me

진보파 패널

연애가 뜻대로 안 돼서 10년째 밤낮으로 공부 중

평소엔 코드가 맞지 않는데, 잠자리만은 퍼펙트라는 거네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잘 맞는 상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몸이 잘 맞는 상대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고 하찮아서, 하나가 잘 맞으면 나머지도 잘 맞는다고 긍정적인 착각을 하기도 하죠. '처음엔 섹스만 좋았는데 감정이 생겼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꼭꼭 신경 써야 할 한 가지. 상대와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만난다면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나를 가슴 절절히 사랑하고 있다면? 만나다 보면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정식 고백'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분명 상대는 '우리 무슨 사이야?'라고 물을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건데, 누군가에게 줄 상처를 외면하진 말아요.

Editor 백수빈 bin@univ.me

+

고민하고 있는 연애 문제를 상담소에 문의하세요. 익명으로 나가니 신상 털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연을 주실 땐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맞게 풀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겠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하프갤런 해피콘**을 쏩니다!

담당자 이메일 min@univ.me

└, 이름 이니셜, 나이, 성별, 휴대폰 번호, 구체적인 사연을 위 메일로 보내주세요!

Myvlar®

하필, 그날?

남자친구와의 첫 여행이 하필, 그날?
위험한데...

그날이 그날이라도 원한다면 마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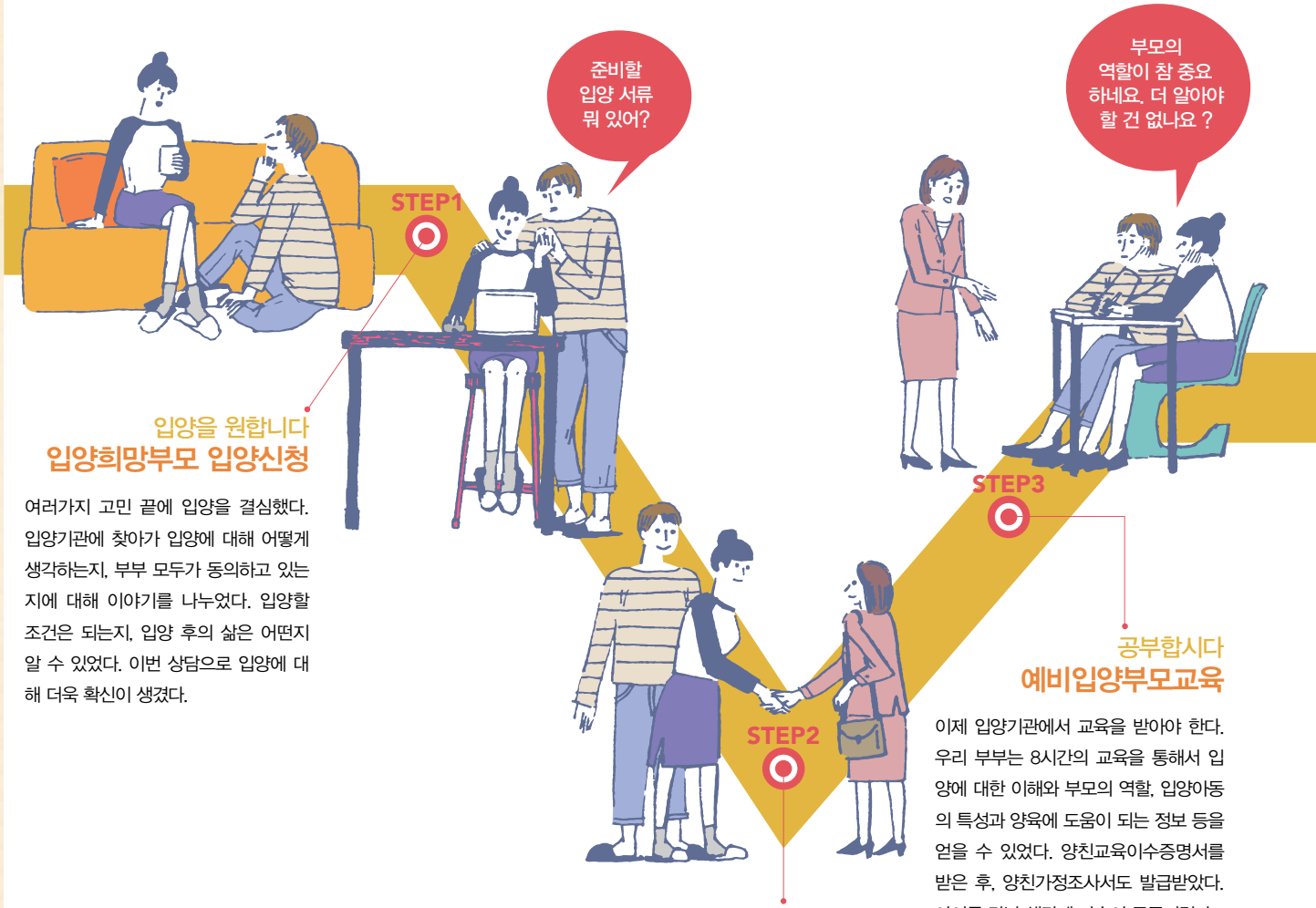
그날을 위한 피임약 마이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1311-0600]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Map of Adoption

오랜 시간 입양을 고민해 온 K씨 부부, 드디어 결심을 했는데! 그들이 만드는 가족, 지금 따라가보자!



입양을 원합니다

입양희망부모 입양신청

여러가지 고민 끝에 입양을 결심했다. 입양기관에 찾아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입양할 조건은 되는지, 입양 후의 삶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이번 상담으로 입양에 대해 더욱 확신이 생겼다.

꼼꼼하게 살펴요

사회복지사 가정조사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며칠 후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님이 우리집을 방문했다. 사회복지사님은 입양 동기와 욕구, 입양 자격 조건 등을 갖추었는지 이것저것 물었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아이 뿐만 아니라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행복도 가로막힐 수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공부합시다

예비입양부모교육

이제 입양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부부는 8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역할, 입양아동의 특성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양친교육이수증명서를 받은 후, 양친가정조사서도 발급받았다. 아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TIP!

양친교육이수증명서가 있다면 (처음 입양신청을 했던 기관이 아니어도) 모든 국내입양 기관에서도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TEP4

두근두근 첫 만남
결연

얼마 후, 우리 부부는 입양 대상 아동을 만났다. 입양 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 예비 양부모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결연'이라 부른다. '결연'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가 아동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부모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결연'도 되고 이제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

STEP5

법으로 허락합니다
입양허가

결연 후 입양기관에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때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STEP6

세상이 오는 일
아동 인도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방문객' 중)

나와 아내, 아이가 만나 아름다운 우리 가족이 탄생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에 따라 입양기관에서 아이와 함께 집으로 왔다. 아이와 관련된 기록(기관에서 챙겨줬다)과 물품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에게 필요할 때 줘야겠다.

STEP7

오래오래 행복하게
입양 후 1년

그동안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진 것 같다. 아이가 아빠를 더 따르는 것 같아 간혹 아내가 장난섞인 질투를 보낸다. 지난 1년 동안 입양기관과 네 번 만났는데, 그중 두 번은 가정방문이었다. 육아에 필요한 소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든든한 이웃사촌을 얻은 느낌이다. 가슴으로 낳는 둘째도 생각해볼까?

Freelancer 스피드웨건 facebook.com/sulmyungchoong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무궁무진.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이슈를 스피드웨건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01
교수님, '표지 빼기' 있긔 없긔?

대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등록금뿐 아니라 전공 서적을 사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쓴다네. 보통은 교재가 잘 바뀌지 않아 선배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 썩 행복하진 않을 거라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원저자의 책을 가짜 저자(해당 대학교수)의 이름으로 '표지 갈이'를 한 뒤 판매하는 거라네. 이렇게 하면 원래 글쓴이는 추후 책을 다시 출판할 기회를 약속 받고, 출판사는 재고를 처리하며, 가짜 저자는 책 출판으로 연구 실적을 쌓을 수 있다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 되는 것이지. 놀랍게도 이런 비도덕적 행위에 참여한 교수는 200여 명이고, 전국의 50여 개 대학교라네. 해당 교수와 출판사 등은 다음 달 내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교수들은 교단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라네. 그들의 마지막 가르침은 '양심을 저버리지 말자'로군.

대학 교재 가격이 만만치 않아 일부 학생들은 책 제본을 하는데, 이는 엄연히 위법 행위라네. 출판사들도 이런 현실에 교재 출판을 꺼린다네.

02
염증? 피부 괴사? 무서운 코뽕의 위험

조그마한 플라스틱 지지대를 콧속에 집어넣어 마치 코를 성형한 효과를 주는 코뽕.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마음에 안 들면 뺄 수도 있어서 젊은 층에서 인기 있지.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주의를 당부했다네. 이 제품 외에도 콧대를 자극해주는 제품이나, 턱선을 갸름하게 해준다는 제품 등도 마찬가지라네. 싼 가격에 큰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네. 게다가 관련 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받을 수도 없다고 하네. 아름다움을 얻으려다 가진 것조차 잃을 수 있으니 부디 주의하길 바란다네.

출혈이나 염증, 부분적인 피부 괴사, 연골 변형까지…. 코뽕을 사용한 이들로부터 이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네.

03
한국 남녀 임금 격차, 145개국 중 116위로 선방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15년 세계 성차별 보고서'를 발간했다네.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 정치적 권한 · 교육 수준 · 건강과 기대수명' 등 4개 분야를 평가했지. 평가서에 따르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전 세계 145개국 중 116위로, 차이가 크다고 하더군. 2013년에는 111위, 2014년에는 117위였던 것을 보면 나아진 게 없다는 소리겠지. 이를 해소하려면 11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네. 여성의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큰 원인으로 봤고, 성 역할에 대한 기업들의 고정관념도 한몫했다네. 더군다나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도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회 구조에서는 저출산을 더욱 일으킬 것이라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니,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네.

사실 성차별 점수는 약간 개선되었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점수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지.

04
나는 나는 멧돼지 왜 나를 싫어하나

최근 몇 년간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네. 멧돼지도 '돼지'라서 그랬는지 사람들에게 무서운 인상은 크게 심어주지 못했지만, 사실 멧돼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난폭한 동물이라네. 최근 어느 시민은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산행 중 멧돼지에게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등산객도 있었다네. 멧돼지들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내려오는 이유는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들어, 일정 공간에 적정 개체 수를 초과하여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네. 혹여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는 절대 소리를 질러 흥분시켜서는 안 되며, 등을 보이지 말고 멧돼지의 눈을 마주친 채, 천천히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해야 한다네. 또한, 산행길에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주변의 나무나 바위 뒤로 숨으면 된다네.

멧돼지는 웬만하면 사람을 피하지만 11~12월에는 교미 기간이고, 4~5월은 포유 기간이라 특별히 난폭하니 주의해야 한다더군.

짬뽕라면중에 갓짬뽕이 가장 맛있다고 전해라~

Oh! My 갓짬뽕 시크릿!

1. 라면계에 전무후무한10가지의 풍성한 후레이크.
2. 삼양 특제 짬뽕조미유를 별첨하여 화끈한 원조 불맛과 감칠맛.
3. 전국 맛집 짬뽕의 레시피인 돈골육수와 해산물로 차별화된 짬뽕 국물 맛.

어뎅탕면도 안 먹어볼 수 없다고 전해라~

어뎅탕면이 필요한 순간!

1. 음주 후 간편하게 시원 칼칼 속풀이 해장라면.
2. 떡볶이, 김밥 등 분식과 함께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맛.
3. 찬바람 부는 겨울 밤, 허전한 속을 뜨끈하게 해줄 야식.

삼양식품 공식 인스타그램
@samyangfoods

불닭복음면 인스타그램
@ilovebuldak

SAMYANG

협동심을 쌓는 공모전 BEST4

Editor 캐미언니 outcampus01@naver.com

01

~1.6

제주항공

제2회 제주항공 Refresh 마케팅·광고 공모전

셋이서 최고의 팀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너님

주제 1) 전략 부문: 대학생 FIT여행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생 마케팅 전략 제안/제주항공을 이용한 제주 여행 시, 대고객 마케팅 차별화 전략 제안
2) 인쇄·영상 부문: 제주항공의 취항노선 홍보를 위한 광고 시안

시상 대상: 300만원, 국제선 왕복 항공권, 인턴십, 입사 특전
최우수상: 200만원, 국제선 왕복 항공권, 입사 특전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결과 저는 팀플을 통해 국제선 왕복 항공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02

~2.29

CJ

CJ헬스케어 헛개컨디션 UCC 공모전

많은 팀원으로 최고의 팀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너님

주제 1) 100% 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헛개컨디션'을 소재로 한 영상 2) '숙취해소'라는 컨셉이 담긴 영상 3) 내가 만드는 '컨디션 Song'

시상 대상(1팀) : 500만원
최우수상(1팀) : 300만원
우수상(3팀) : 100만원
장려상(8팀) : 50만원
※응모한 모든 분께 헛개수콤보를 드립니다(1인 1매 증정)

결과 저는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팀원들을 데리고 성공적으로 UCC를 완성했습니다.

03

~12.30

에버랜드

제2회 에버랜드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네 명으로 최고의 팀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너님

주제 1) 에버랜드의 대표 캐릭터 '레니와 친구들'
2) 2016년 에버랜드 동물원에 전시 예정인 '판다'

시상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참가상 : 에버랜드리조트 상품권 50팀

결과 저는 이해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팀플레이로 공모작을 완성했습니다.

04

~1.7

LOTTE

2015 LOTTE IDEA 공모전

둘 또는 셋이서 최고의 팀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너님

주제 롯데그룹 계열 1개사와 제시한 키워드를 조합해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

시상 대상 500만원/총 1팀
금상 300만원/총 21팀
은상 200만원/총 21팀
동상 100만원/총 21팀
※신입공채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or 인턴십 기회부여

결과 저는 공모전의 팀플 활동에서 배운 소통 방법을 어필해서 롯데그룹에 합격했습니다.

www.bifesta.co.kr

촉촉촉 물방울 샤워 클렌징 워터

3초면 모공은 알아요
얼마나 개운한지!
비페스타 클렌징 워터

메이크업 틈새로 물방울이 침투해
모공 속 잔여물까지 말끔하게 씻어내고
화장수로 자극없이 촉촉하게 피부를 지켜주는
물방울 샤워 클렌징 워터, 비페스타
지금까지의 클렌징 워터와 다른
깨끗함과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Bifesta
비페스타

Focus :

01 예쁘니까 EOS M10

'예뻐서 쓴다'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시대에 카메라도 예외는 아니다. EOS M10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더해 컬러 선택의 폭까지 다양하다. 3가지 색상의 바디(화이트, 블랙, 블루 이쉬 그레이)와 5가지 색상의 '페이스커버'(라즈베리 레드, 미드나잇 블루, 써니 옐로우, 크림 아이보리, 시크 스트라이프)를 취향과 기분에 따라 매치하면 어디서나 눈에 띄는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02 예뻐지니까 EOS M10

시험기간 밤샘으로 지친 피곤한 얼굴도, EOS M10 앞에서는 꿀잠 자고 일어난 보송보송한 얼굴이 된다. 비결은 캐논 미러리스 최초로 도입한 '예쁜 피부 효과'! 흔히 말하는 '뽀샤시' 기능의 완전판이 집약되어 있다. LCD를 180도로 사뿐히 들어 올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편히 셀피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 EOS M10과 함께라면 더 이상 셀피의 'Before' 버전은 없다. 오직 'After'만 있을 뿐! 여성 유저들에게 최적화된 카메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아쉬울 때 Canon EOS M10이 필요한 4가지 이유

03 잘 찍히니까 EOS M10

조작은 스마트폰처럼 쉽지만, 결과물은 DSLR 못지않은 것. 그것이 우리가 미러리스에 바라는 기능이다. EOS M10으로는 선명한 고화질 이미지 촬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 기능과 다양한 이미지 필터 효과를 활용해 느낌 있는 나만의 작품 사진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캐논만의 화사한 색감은 눈앞의 풍경을 어디서나 한 장의 엽서로 만들어준다.

04 쉽고 편하니까 EOS M10

미러리스를 처음 사용하거나 기계 조작에 서투른 사람이라도 EOS M10 앞에서는 걱정 끝! 복잡하게 기능 버튼을 익힐 필요 없이, LCD를 터치만 하면 된다. 어려운 용어 대신 알아보기 쉬운 아이콘으로 메뉴가 표시되어 있어, 사용설명서 없이도 조작이 충분하다. 또한 Wi-Fi, NFC 기능을 활용해 찍은 사진을 원 터치로 스마트폰, 태블릿에 전송할 수 있다. EOS M10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고 싶은 일상의 순간을 마음껏 기록하고, SNS에 바로 공유할 수 있다.

UNIV TOMORROW CORPORATION

2015 유스마케팅 컨퍼런스

2015
YOUTH MARKETING
CONFERENCE

20대와 기업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사이트

YMC(Youth Marketing Conference)는 유스마케팅 전문기업 ㈜대학내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스마케팅 기업들이 최신 20대 마케팅 트렌드를 공유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개 요

일 시 12월 10일(목) 오후 3시 - 6시
장 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실

주요 프로그램

기조강의 "대한민국의 20대를 말하다" 다니엘 린데만, JTBC "비정상회담" 패널
세션 01 2016 20대 트렌드 키워드 5 예측 | 20대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싶은 당신, 이것만 기억하라!
세션 02 Gimme Five 20's Social Insight | 20대 소셜미디어를 이해하는 다섯가지 인사이트
세션 03 Digital Paradiso | 지금은 4D
세션 04 Youth Marketing Awards | 성공하는 유스마케팅의 조건, 1등에게서 찾다.

행사장 안내 및 약도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실

지하철 이용 시
- 6호선 대흥역에서 5분

버스 이용 시
- 153, 163, 272, 470, 921, 5712, 5714, 6712번 버스 서강대후문 역에서 하차, 도보 5분

자가차량 이용 시
- 서강대 후문 주차장 이용, 도보 5분

참여방법

티켓구매 티켓링크 홈페이지 http://www.ticketlink.co.kr/product/12246 에서 선착순 구매 (₩10,000)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2016 S/S 20대 트렌드 리포트" 를 증정합니다.

판매기간 11월13일(금) - 12월10일(목) *판매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 의 songsh@univ.me | 02-6925-0705

주최 ㈜대학내일

고용노동부

청년을위한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핵심정책

참여 대상을 **재학생으로 확대**

청년 고용정책 게이트웨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여개소 신설
대학청년고용센터 53개소

학년이 올라갈수록 걱정과 불안감만 쌓인다고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대청고에 방문해보세요!

누가?
-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 누구나** 방문참여 가능

혜택은?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
- 대학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생 역량강화 훈련
- 구직등록 및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 좌측하단 우리학교취업지원실 ➔ 상담예약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취업성공패키지
10만명 + 3만명 확대 = 총 13만명!!

취업이 어렵고 막막하다고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별 ·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누가?
- 청년(18~34세)
- 고교, 대학 마지막학년 **재학생**
- 저소득층(1유형)

혜택은?

1단계	2단계	3단계
상담 · 경로설정	직업능력향상	취업알선
• 참여수당 20만원	• 훈련참여수당 최대 월 40만원	

신청 방법은?
- 취업성공패키지홈페이지(www.work.go.kr/pkg)접속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참여요건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직업능력 개발

청년취업아카데미
1만1천명 + 인문계특화과정 500명 확대

내가 원하는 분야에 실무능력을 전수받고 싶다고요?
실무능력 전수, 취업지원은 기본!
기업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미리 경험하고 배워보세요!

누가?
- 일반고 · 대학졸업예정자(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가능자)
- 졸업생(만 34세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가능

혜택은?
- IT, 금융,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에게 **기업이 원하는 실무 교육** 무료 수강
- 협력대학 재학생이라면 **학점 인정** 가능

신청 방법은?
- 청년취업아카데미(www.myjobacademy.kr) ➔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취업률 70% 이상 우수과정 예시 | • 중소기업 맞춤형 EPR실무전문가 양성과정 • 빅데이터 기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전문개발자 양성과정

국가기간 · 전략 직종훈련 확대
3만 5천명 + 2만 5천명 = 6만명!!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고요?
기계, IT 등 인력 부족 직종 ·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증가되는 분야의 훈련을 받아보세요!

누가?
- 비진학 고3
- 대학4학년
- 졸업자 등 일반 구직자

혜택은?
- 훈련비 **무료!**
- 훈련장려금최대 **월 31.6만원**

신청 방법은?
- HRD-Net(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일경험

청년인턴제
3만 5천명 + 1만 5천명 확대 = 5만명!!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신다고요?
중소 · 중견기업 인턴근무 기회의 제공을 통해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여보세요!

누가?
- 취업경력이 1개월 미만이면서 신청시 미취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혜택은?
- 중소 · 중견기업에서 실무경험
- 정규직 전환시 취업지원금제공 (제조업 생산직은 1인당 최대 300만원 그 외 직종(업종)은 180만원)

신청 방법은?
- 청년인턴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신청 ➔ 인턴자격심사 ➔ 인턴취업매칭 및 취업상담 ➔ 사전직무교육 ➔ 인턴근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3천 3백개 + 1천 4백개 확대 = 총 4천 7백!!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빨리 취업하고 싶다고요?
한국형 도제제도! 현장훈련과 실무교육을 동시에 받아보세요!

누가?
- 학력에 관계없이 청년 누구나

혜택은?
- 기업으로부터 **임금, 4대보험** 등 각종 노동법 적용
- 정부 · 산업계가 인정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 취득 (대학연계형의 경우 **학위취득**도 가능)

신청 방법은?
- 일학습병행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신청
-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www.hrd.go.kr, www.hrdkorea.kr) 확인

해외취업 /창업

해외취업 K-Move 스쿨
3천명 + 장기연수과정 200명 확대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요?
연수비도 지원받고 특화된 맞춤연수로 해외진출에 도전해보세요!

누가?
- 합법적 비자 발급이 가능한 34세 이하 청년

혜택은?
- 1인당 **최대 800만원**(장기) **580만원**(단기) 연수비 지원

신청 방법은?
- 월드잡(www.worldjob.or.kr) ➔ 신청하기 클릭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취업률 85% 이상 우수과정 예시 | • 일본 네트워크서버관리 OJT과정 • 중국비지니스 중간관리자 연수과정 • 미국 취업글로벌 자동차 공학전문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15년 기준 278팀 선정완료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꿈꾸시나요?
기술창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과정을 원스톱 지원해드립니다!

누가?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하인자

혜택은?
- 1년간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까지
- 창업공간, 창업교육, 창업코칭, 기술지원 등

신청 방법은?
- 자세한 정보는(start.sbc.or.kr)
- 신청은 창업넷(www.startup.go.kr)
- 중소기업청 콜센터(☎1357)

청년구직자라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진로 및 취업 정보 포털사이트 워크넷 www.work.go.kr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 각종 훈련과정 사이트 HRD-Net www.hrd.go.kr

올 연말 미치도록 웃고 싶다면 예매하라!

코미디 천재 '장진' 귀환!

공연티켓 1+1 선정작!

R석 2인 40,000원

(12월 공연에 한함)

연극

꽃의 비밀

2015.12.1 OPEN DCF 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

작/연출 장진 출연 김연재/추귀정, 한예주/조연진, 한수연/김나연, 오소연/심영은, 김대령/이창용, 차재이/권세린

제작 문화창작집단 수다, ㈜수현재컴퍼니 제작지원 장차 문의 02)766-6506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Scene #1

Editor 김슬 dew@univ.me

그 남자를 위한 변명

tvN 〈풍선껌〉

'남사친 로맨스'의 핵심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라는 판타지에 있다. 그는 여주인공과 함께 자라서 사소하게는 그녀의 술버릇부터, 크게는 인생을 뒤흔들었던 사건 사고까지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사실 시청자가) 원하는 행동을 척척 해준다. 사람이 필요한 날엔 어깨를 내어주고, 아픈 날엔 득달같이 달려와 가족처럼 챙겨준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남자와의 연애로 멘탈이 너덜너덜해진 여주인공은 결국 귀신같이 자신의 속내를 알아주는 남사친의 품을 택한다. 〈풍선껌〉의 행아 역시 너무나도 바쁜 석준 때문에 '지쳐서 미쳐서' 이별을 결심하고 오랜 친구 리환의 손을 잡는다. 그런데 왜일까. 석준이 아닌, 행아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는 나를 다 아는 사람 말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편했어요. 내가 진짜 씩씩하다고 오해하는 사람이나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행아는 자신을 붙잡는 석준에게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은 늘 불행했노라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맞다. 석준은 행아를 '오해'하고 '착각'했다. 그녀가 정말 구김살 없이 씩씩한 사람이라고, 혼자 둬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석준이 행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생일을 함께 보낼 수 없어 걱정하는 그에게 행아는 "친구들과 파티 할 거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고, 석준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행아가 혼자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은 석준에게도 마찬가지로 상처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왜 말해주지 않았냐는 물음에 터져 나온 그녀의 대답이다. "선배는 내가 생일,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기고, 아파도 엄살 안 떨고 씩씩해서 좋다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까놓고 말해보자. 정말 그를 완벽하게 속이고 싶었던 건지. 아니다. 반쯤은 들키고 싶은 마음, 반쯤은 먼저 알아채주길 바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 속의 진실을 알아챌 수 있겠지. 판돈을 거는 것처럼. 그러나 연애란 결국 너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착각을 벗겨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생채기와 진통이 두려워 그대로 덮어둔다면, 그는 영원히 내가 진심이 아님을 알지 못할 테고 나는 끝내는 그에게 사랑받는 걸 포기하게 될 것이다. 꽁꽁 감춰놓은 속내를 알아서 헤아려주는 사람만이 운명이라면, 언제나 승자는 20년 넘게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온 '남사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강석준을 응원한다. '몰라서' 그녀를 외롭게 했던 그가, 알게 된 후엔 얼마나 좋은 사람일 수 있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심한 연인을 밀어내기 전에 딱 한번만 더 생각할 수 있기를. 혹시 나는, 나에 대한 착각을 방치한 채 상대의 사랑을 멋대로 재단해 버리진 않았는지 말이다.

Weekly: Questoon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Webtoon

썸남

배철완 / 네이버

2015. 5. 10 ~

고민은 잘 해결됐어?

고민 상담은 '먹히는' 콘텐츠다. Q&A 형식의 고민 상담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잡지의 한 귀퉁이를 차지한다. 진로, 인간관계, 연애, 섹스 등 자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매체를 가리지 않고 '상담꾼'으로 나선다.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마음의 짐을 털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전문 상담꾼에게 답을 구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고민하는 사람이 묻고, 상담하는 사람이 답하는 이 형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고민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4번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묻는 사람 A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고민들을 나름대로 정리(왜곡1)해 B에게 말한다. 답하는 사람 B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A의 말을 해석(왜곡2)하고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선택(왜곡3)한다. A는 B의 답변 중 듣고 싶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왜곡4). 〈썸남〉의 규태와 원형도 그랬다. 원형은 민아와 연애 중이지만 남자에게 끌리는 본인의 성적 취향 때문에 고민이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썸남' 기제와 규태를 만나고, 둘을 연인 사이로 오해한다. 그날 밤 술집에서 또다시 재회한 두 커플. 원형은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사랑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규태는 '어떻게 만나(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 대답한다. '(남자와) 어떻게 스킨십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동물과의) 스킨십 요령'을 설파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민 상담의 결과는 성공적이다. '(동물과의 스킨십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과감히 해야지'라는 규태의 말에 큰 용기를 얻은 원형이 민아와 헤어지고 맘에 뒀던 남자친구에게 고백해 연인이 된 것이다. 운이 좋았다고? 고민 상담이란 게 원래 그렇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오해는 필연적이다. 오히려 '니 고민이 뭔지 알겠다'는 전문가의 확신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어쩌면 좋은 상담꾼의 자격은 '초심자', 아니 '문외한'일지도 모른다. '대화의 신'이라 불리는 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도 그랬거든. "때론 조금 밖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고민 상담이란 게 원래 그렇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오해는 필연적이다.

Culture Critic

Reporter 김송미 songme920226@gmail.com

대중없는 시상식

말 많던 52회 대종상이 결국 웃음거리로 끝났다. '참석상' 논란, 수상 번복 등 여러 잡음 끝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시상식에 불참했다. 사상초유의 썰렁한 시상식이 준 충격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대종상을 주최하는 '영화인 총연합회' 내부의 밥그릇 싸움, 대종상이 걸어온 석연치 않은 행보….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대종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제기됐다.

그런데 엠넷이 주관하는 가요 시상식 'MAMA'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엠넷과의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YG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이 대거 출연을 확정한 가운데, 몇몇 기획사는 소속 가수의 불참을 선언하거나 출연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항간에는 특정 기획사 소속 가수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타 기획사와의 기싸움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두 시상식이 겪는 주최상의 난항은 표면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나 두 사태 모두 대중은 안중에도 없이 철저히 산업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국내 시상식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이 함께하는 시상식", "아시아의 음악 축제". 두 시상식이 내세운 표어에는 영화, 음악에 대한 대중적 성원이 들어 있다. 그 성원을 대표하는 축제를 열겠다는 다짐을 이들은 당당히 이름 앞에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자 그 속에 대중은 없었다. 주최 측은 그들끼리의 밥그릇 다툼에 급급했고, 화려한 스타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시상식에 당위를 더하려 했다. '자신들의 잔치'에 스타와 시청자가 필요했던 주최 측과, '자신들을 대표하는 시상식'을 기대했던 시청자. 그 확연한 온도 차에 대중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대중이 사랑한 작품이 수상은커녕 출연조차 불투명한 시상식에 권위가 생길 리 만무하다. 각종 이권 다툼과 이름 나열에 급급한 '그들만의 리그' 대신 영화와 음악을 사랑한 이들을 위한 시상식이 필요하다. 올해 대종상의 수상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듯, 올해 MAMA 역시 그 기로에 서 있다.

한 산업은 결코 그 자체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열렬한 지지로 음악을 듣고, 극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오늘의 음악, 영화 시장을 만들었다. 대중을 위하는 시상식은 멀리 있지 않다. 인기투표를 해 입맛에 맞는 이들에게만 상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출연자를 정하고, 시상하는 것. 딱딱한 권위의식 대신 '수고했다'는 동업자 정신을 시상식에 담는 것이면 충분하다. 한 해 나를 웃기고 울린 그대들의 어깨를 나 대신 두드려줄 시상식이 보고 싶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
Univ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ties

대학내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 지음 | 216쪽 | 정가 12,500원

나왔다!

2016 상반기 20대 트렌드 예측 도서!

나, 트렌드쟁이 스피드꾸건!

20대 트렌드를
실감나는 사례와 함께 설명하러 왔다네

20대 트렌드계의 일등이 되고 싶다면
꾸건 믿고 한 번 읽어보게나!

2016 상반기 20대 트렌드 키워드 5

이ㅈ세대	페이크슈머	댓글리케이션	소소잼	관태기
[injeong : sedae]	[fake : sumer]	[datgl : ication]	[soso : jam]	[gwan : taegi]
인정을 당당히 요구하는 20대	가치 있는 가짜를 소비하는 20대	댓글로 소통하는 20대	소소한 것에 재미를 느끼는 20대	관계에 권태로움을 느끼는 20대

주요 내용 소개

- 2016 상반기 20대 트렌드 키워드 5
- 소셜미디어 트렌드 키워드 3
- 취업 트렌드 키워드 4
- 20대 핫 딕셔너리 30
- 20대 탑브랜드 어워드
- 20대 아웃캠퍼스 트렌드
- 빅데이터로 보는 20대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대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등 주요 서점을 비롯해
인터파크 도서, YES24 등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
아, 휴대가 간편한 **ebook**으로도 준비해 놓았으니 참고하게! 그럼 20000!

오, 나의 악당!

위인전집을 정독하던 7살 땐 세상이 절대적인 선과 악으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자 오히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것인지 헷갈리더라.

Editor 김슬 dew@univ.me

패닉 2집 〈밑〉

들어보면 모두 패닉에 빠지게 될 걸

〈무한도전〉의 '맹꽁이'로만 이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앨범을 한번 들어보라. 1집의 '달팽이'와 '왼손잡이'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패닉이 본모습을 드러낸 두 번째 앨범 〈밑〉. 표지부터 심상치 않은데, 그로테스크한 얼굴들이 가득하다. 딱 봐도 '착한 놈은 아니군' 싶다. 첫 곡, '냄새'부터 그들은 뭔가 강하게 썩는 냄새가 난다고 노래한다. 기분 나쁜 침 소리와 킁킁대는 소리로 듣는 이의 정신을 반쯤 빼놓고, 직설적인 사회 비판이 이어진다. 언론 통제와 교권 남용, 맹목적인 가족애, 소수 의견의 묵살 등을 가차 없이 들쑤시는 패닉. 음반의 사전 검열이 사라진 이듬해에 출시되었음에도 이 앨범은 무더기 가사 삭제를 당한다. 높으신 분들이 볼 때 악당도 이런 악당이 없었을 터. 하지만 사회의 부조리가 못 견디게 싫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 가사를 들으며 사이다를 들이켠다. "오, 나의 악당님!" 환호성을 지르며.

Reporter 공태웅 dnlriver@naver.com

짐승의 끝

신이시여 지키소서

위기에 처한 만삭의 순영, 불시착한 마을엔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멀리선 산짐승의 포효가 들려온다. 이때 야구 모자를 쓴 사내가 불쑥 나타나 과거와 현재를 줄줄 읊는다. 당신이라면 어떨까? 의심이 들면서도 자꾸 미래를 묻게 될 것이다. 용한 점쟁이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그의 목소리는 여유롭다 못해 나른하다. 그는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주고는 명령을 지키라 당부한다. "네가 무사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위기에 처한 순영을 딱 죽지 않을 정도로 구해주고 다시 절망에 빠뜨리는 야구 모자, 그는 '신'의 다른 얼굴이다. 구원을 약속하는 절대자의 말은 달콤하지만, '어항 속에 손을 넣어서까지 챙겨주진 않겠다'는 선언은 지독히 야속하다. 그러나 거부할 수가 없다. 명령만 잘 지킨다면 절대자께서 뭐든 해주실 것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잊고 만다. 애초에 재앙을 내리는 자가 그라는 사실을. 어쩌면 신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악당일지도 모른다.

Reporter 임현경 hyunk1020@gmail.com

국민사형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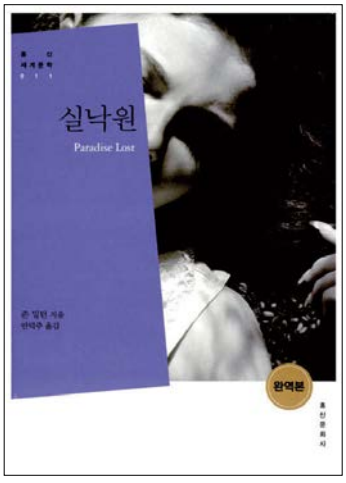
무죄인 악마를 위한 투표

어느 날,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영상문자 하나가 전송된다. 문자를 열자마자 나온 것은 개의 탈을 쓴 사람, 일명 '개탈'이다. 영상에서 그는 앞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이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어떤 투표냐고? 국민들이 직접 범인의 사형에 찬반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사형투표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가면 '개탈'이 범인을 살해하는 것이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요는 없다. 기권도 가능하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예상할 것이다. 투표는 반대와 기권의 비율이 높고, 연쇄살인마인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투표는 매번 찬성이 과반수를 넘기고 그를 정의 구현에 힘쓰는 영웅이라 추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개탈' 나름의 철학이 국민에게도 먹힌 것이다. 거기다 예고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고 마는 천재성까지 겸비했으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일요일 연재.

Reporter 배대원 bdw1707@naver.com

실낙원

낙원을 꿈꾸는 자에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낙원에 살고 있었다.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낙원(Paradise)을 잃어버렸을뿐(Lost).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그린 대서사시가 바로 밀턴의 『실낙원(Paradise Lost)』이다. 주인공은 아담과 이브. 착한 편은 인간을 구원하는 신과 예수고, 못된 놈은 사탄, 루시퍼다. 그런데 웬걸? 나쁜 편에게 자꾸 눈이 간다. 천상에서 가장 빛나는 천사였던 루시퍼는 신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다. 억압 속에서 자유를 쟁취하자고 외치는 그의 대사는 웅장하다. 절대자에 맞서 꿀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루시퍼를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 불경스럽기까지 한 루시퍼를 통해 밀턴은 보여주고자 했다. '욕망 때문에 천상에서 추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또 다른 낙원을 '욕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루시퍼는 알게 됐을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낙원이 어떤 모습일지. Reporter 김송미 songme920226@gmail.com

대학내일 맘대로 뽑은

이주의 영화 Best 3

Reporter 공태웅 dnlriver@naver.com

1 트립 투 잉글랜드

감독 마이클 윈터바텀

점차 퇴물이 되어감을 느끼는 중년 배우 스티브. 애인과도 삐걱, 이혼한 가족과도 삐걱. 삶 전체가 삐걱댄다. 때마침 떠나게 된 영국 맛집 기행에는 성대모사로 가늘고 긴 커리어를 자랑하는 친구, 롭이 함께한다. 롭을 향해 티격대는 스티브의 퉁명스러움은 어느덧 깨닫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하소연일 것이다. 음식보다 끌리는 사람 냄새에 미소가 가시질 않는 영화.

2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Reporter 김송미 songme920226@gmail.com

감독 정기훈

밥그릇 싸움 앞에서 열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와 나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노력도 열정의 일부라고 얘기한다. 결국엔 열정이 밥 먹여주는 것 맞다고요!

Reporter 배대원 bdw1707@naver.com

3 괴물의 아이

감독 호소다 마모루

아이는 살면서 수많은 부모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한다. 가끔 오그라드는 대사가 몰입을 방해했음에도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만든 세계는 신선하고, 따스했으며, 감동적이었다.

되면 한다

꼭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되면 한다

대학내일 콘텐츠 인터-언 에디터

공식적인 덕질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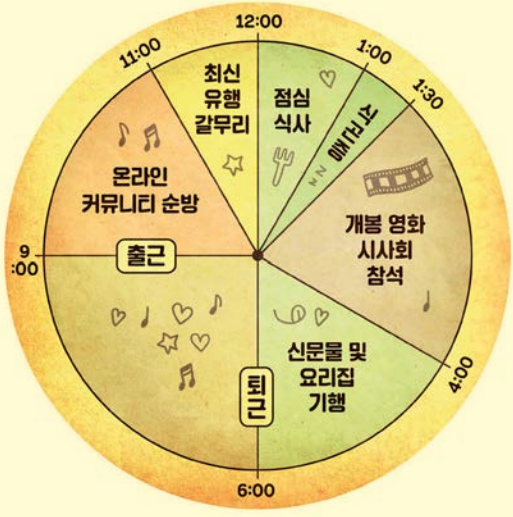
인터뷰는 사심이다

두뇌는 푸-울가동

손가락은 고속주행

월급날이 돌아온다

일하듯이 놀다보면



지원 방법

recruit.univ.me를 통한 온라인 지원

지원 대상

2·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2016년 상반기 휴학(졸업) 예정자

모집 분야

매거진/디지털 미디어 파트 인턴 에디터

모집 인원

2명 / 2명

전형 절차

서류 접수
2015.12.1~2015.12.14 정오까지

1차 합격자 발표
2015.12.17 (개별 연락)

2차 면접
2015.12.21~22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2.24 (개별 연락)

근무 기간

2016년 1월~6월 (6개월)

근무 조건

대학내일 인턴 대우에 준함

문의

univ20@univ.me
02-6959-8830

모십니다

재야의 숨은 고수를 모십니다

대학내일 SNS 인터-언 에디터

불기만 하면 아이디어 허니잼 생산자 우대

뿌리기만 하면 무한공유 소-오셜 호사가 우대

만지기만 하면 쓸고퀄 모태금손 우대

지원 방법
recruit.univ.me를 통한 온라인 지원

지원 대상
2·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2016년 상반기 휴학(졸업) 예정자

모집 분야
SNS 채널 인턴 에디터

모집 인원
1명

전형 절차
서류 접수
2015.12.1~2015.12.14 정오까지
1차 합격자 발표
2015.12.17 (개별 연락)
2차 면접
2015.12.21~22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2.24 (개별 연락)

근무 기간
2016년 1월~6월 (6개월)

근무 조건
대학내일 인턴 대우에 준함

문의
univ20@univ.me
02-6959-4006

웃

세대의

자존감 회복법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집으로 돌아가는 밤 버스 안. "나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어. **어두운 표정을 감추려고 즐거운 양 떠들다가, 기운이 쪽쪽 빨려 너덜너덜해진 날.** 텅 빈 주머니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 치 용돈을 한 번에 써버린 날. 면접에서 떨어져서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를 남발한 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했다가 진짜 큰 실수를 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진 날.** 소개팅남은 마음에 안들지만,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웃다가 입이 아픈 날.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버스 창밖 가로등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어.

※ ㅇㅈ세대 :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꼽은 2016년 키워드. SNS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

일렁이는 가로등 사진을 몇 장 놓고 고르다가, 고심 끝에 한 장을 고르고 사진 아래엔 해시태그도 붙였지. **#뿌듯한_하루 #가로등이_나보다_예쁨.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나니, 정말 뿌듯한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친구 몇몇이 '좋아요'를 눌렀어. 하지만 나는 알았지. **내 기분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Check List

당신은 얼마나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가?

- ☐ **1.** 수시로 SNS에 들어가 '좋아요' 수와 댓글을 확인한다.
- ☐ **2.** 페이스북 친구 숫자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며, 친구를 늘릴 방법을 찾아본다.
- ☐ **3.** 여행을 하면서 "어디서 사진을 찍어 올릴지"를 생각하는 편이다.
- ☐ **4.**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면 긴장된다.
- ☐ **5.** 농담을 한 뒤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
- ☐ **6.** 모임에선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 **7.** 스터디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난 틀렸어…"라며 슬픔에 잠긴다.
- ☐ **8.** 답정너 질문을 종종 던진다. ex) "나 아까 설현 닮았단 말 들었는데 칭찬인가?"
- ☐ **9.** 선후배나 교수님, 친구, (인턴 시) 상사가 내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인정받은 것 같아서 일을 무리하다가 정신적 또는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 ☐ **10.** 과제나 발표 준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잘 하고 있어?"라고 자주 묻는다.

0~3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나를 사랑하기에 행복한 당신.

4~6개

균형 감각이 황희정승 급

행복과 평판을 둘다 잡는 똑똑이

7~9개

칭찬 들으면 행복 비난 들으면 괴로움

뒷장을 펼쳐봐요.

10개

괜찮아요? 많이 지쳤죠?

뒷장을 펼쳐봐요.

자존감 낮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지금부터 자존감을 올려보겠습니다!" 결심하면 "짠~" 하고 올라가는 게 자존감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은 "날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들다"며 가슴을 치고 있다. 바꿔 생각해보면, 인정받거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자존감 때문에 끙끙 앓지 말자. 자존감 좀 낮으면 어때? 쿠크다스 멘탈로도 잘 먹고 잘 살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Love is touch Touch is love

처방 + 만지고 껴안아라

내 남자친구는 '새가슴'이다. 말 그대로 쇄골과 가슴 사이가 볼록하게 솟아 있다. 나는 그의 가슴 위로 머리를 기댄다. 꼭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생긴 것 같다. 참 신기하다. 살을 맞대면 온기가 느껴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가 세상에서 제일 미운 밤에도 새가슴에 열쇠를 넣고 문을 열고 싶었다. '스킨십'은 나를 아끼게 만드는 특효약이다. 실제로 간단한 스킨십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상대와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데다가,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도 한단다. 사랑은 마음만 배부르게 하는 건가 보다. 지금 당신의 자존감이 0에서 머물러 있다면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그를 쓰다듬고 껴안아라. 그리고 그의 손길을 받아 들이는 거다. 당신만 알고 있는 비밀의 문이 생긴다면 안정감이 생길 것이다. 연인은 미래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고? 가족, 애완동물, 아기…. 세상엔 나와 온기를 나눌 존재들은 너무나도 많다.

Reporter 윤소진 leeun0651@naver.com

'네 탓'이 필요한 시간

처방 + 모두 다 내 탓? 네 잘못은 네 탓이다

"내가 다 못한 탓이지 뭐." 평소 자기 탓을 많이 하는 친구의 말이다. 시험을 못 봤다든지, 면접에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일이기만 하면 다행이다. 사귀던 사람이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가 깨진 후 자책하며 뱉은 말 역시 "내가 다 못한 탓이야." 아니야! 너 탓 아니라고! 그녀의 '내 탓'은 겸손함 때문일까? 『자존감의 여섯 기둥』의 저자 나다니엘 브랜든은 "자존감이 낮아지면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말한다. 만약 스스로를 과대평가 한다면, "난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모양일까" 탓하게 된다. 자기를 과소평가 할 땐 제아무리 좋은 칭찬을 들어도 "맘에도 없는 말일 거야"라며 거부하고 만다. 현실적인 눈이 필요한 때다. 내가 잘한 건 '내덕', 남이 잘못한 건 '남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 세상사가 그렇듯,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라는 법은 없다.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게 꼭 내 탓이라는 법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온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곧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도한 죄책감이 들 때엔 '정말로 내 탓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곧 남들의 책임이니, 다 떠맡으면서 소중한 나를 갉아먹지 말자.

Reporter 임기훈 s10carrot@gmail.com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신동이었다

처방 + 어릴 때 잘했던 일을 계속 하라

나는 어릴 때 '필기 신동'이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3시간 4시간이고 집중했다. 1mm의 삐뚤어짐도 허용하지 않는 가지런한 글씨로 동네에서 이름을 날렸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었다.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들으니 신나서 계속 했던 거다. 요즘도 어릴 적 노트를 펼쳐보며 나직이 감탄을 토한다. 마음이 복잡할 땐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골라 가장 좋아하는 펜으로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옮겨 적는다. 정성스럽게 정리된 필기를 보면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지고,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이런 사소함이야말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동생은 다리를 잘 찢었고, 옆집 꼬맹이는 돌멩이를 던지는 족족 전봇대를 정확히 맞혔다. 다리를 잘 찢었다면 발레나 태권도를 배워보고, 돌멩이를 잘 던졌다면 실내 사격장이나 양궁장에서 실력을 늘려도 좋다. 네덜란드의 학자 요한 호이징하의 말대로, 우리는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사람)'의 후예들이다. 어린 시절 재밌게 놀았던 기억을 끄집어내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신동이었다.

Reporter 권성한 freedom_han@naver.com

One and Only
그게 바로 나지

처방
+
아무도 따지 않는
자격증을 따라

2년 전쯤 취업스터디에서 남자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저기, 피곤해 보이시는데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네? 미쳤어요? 그의 설명은 이랬다. "제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서요. 피곤한 분들 보면 안마해드리고 싶어요."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이 내 맘도 풀어졌고, 조용히 그에게 등짝을 내밀게 됐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취뽀하여 스터디를 떠나게 됐는데, 그가 말한 취업 비결이란 바로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누가 피곤한 걸 참지 못하는 사근사근함이 면접관에게도 통했다는 얘기였다. 그에게 토익 점수는 없었고, 스펙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여유롭고 당당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별난 자격증은 꽤나 많다. 스킨스쿠버 자격증으로 모험심 넘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도, 티(tea) 소믈리에로 여유와 우아함을 뽐낼 수도 있다. 배우 서예지는 '성교육 자격증'(?)을 땄다고 한다. 비록 작은 것일지어도, 나만 할 수 있다는 성취감. 그것이 토익 10점 상승보다도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Reporter 김선화 tjsghk0648@naver.com

바위를 뚫는 건 폭풍우가 아닌 낙숫물이다

처방
+
칭찬꾼 옆에
꼭 붙어 있어라

폭풍우가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놉!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야말로 바위에 구멍을 낸다.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불호령 100번+폭풍 같은 칭찬 1번'보다도, '소박한 칭찬 10번'이 자존감을 튼튼하게 만든다. 서은국 연세대 교수의 책 『행복의 기원』엔 "행복감이란 뇌에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실험 결과 '강한 기쁨 한 번'보다는 '자주 더 많이' 기쁠 때 사람의 행복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모든 칭찬이 다 특효약일 순 없다. 칭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속 빈 칭찬'과, 나도 몰랐던 내 좋은 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칭찬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오늘은 화장이 떴는데, "예뻐~ 예뻐~"라며 노래를 불러준다면 상대는 조롱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진짜 칭찬꾼들은 클래스가 남다르다. "오늘 입은 옷이랑 머리칼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 또는 "발표할 때 네 목소리 좋더라" 등등. 진짜 '칭찬꾼'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의 곁에 머물러라.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Find

Cover Model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7@naver.com으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전신 사진 2장 이상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얼굴 사진 4장 (프로필 사진 제외)
+@끼를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1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2 짧은 인터뷰
3 '뷰티 인생템' 4가지 소개
4 그 외 대학내일 행사 참여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될 거예요!"

tvN 코믹가족극

응답하라 1988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CAN'T HELP REPLYING

방송 전날: "응답하라 1988? 그거 또 나와? 88년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 뭐, 혜리? 연기 못하지 않아? 류준열은 또 누구야. 제 2의 '쓰레기'를 노리는 건가?"
방송 직후: "어제 '응팔' 봤어? 정팔이랑 정봉이 너무 좋아…. 덕선이도 너무 귀엽고… 아이고~ 김 사장~"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우리도 우리가 처음이니까

'남편 찾기', 물론 재밌다. 남편이 누군지 몰랐기에 셜록에 빙의해 쓰레기와 칠봉이의 일거수 일투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추억 팔이', 역시 맞는 말이다. 90년대 말의 유행가가 없었다면 성시원과 윤윤제의 수많은 명장면들은 훨씬 더 밋밋했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하라〉 시리즈의 진짜 매력은 '인간에 대한 이해'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응답하라 1988〉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은 어느 드라마에나 있다. 〈응답하라〉가 특별한 건 누구나 가진 다양한 결점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그 결점이 미묘하게 비틀려 장점이 되는 순간을 포착해내기 때문이다. 쌍문동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상처를 덮어주고 웃게 하는 것 역시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다. 〈응답하라〉는 모든 캐릭터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결점을 찾는다. 얘는 이래서 밉고, 쟤는 저래서 짜증 나고, 걔는 그래서 싫고…. 주변엔 왜 이리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뿐인지. 성동일의 말을 빌리면, 잘 몰라서 그렇다. 우리도 우리가 처음이니까, 너도 네가 처음이니까, 누구나 인생이 처음이니까. 한 번 봐주자.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쌍문동 사람들이 그렇듯, 네가 그렇듯.

다혈질 4차원 원칙 까불이 뇌순남뇌순녀 주의자 츤데레 오지라퍼

속마음은 마음속에 있당께

다혈질 =

동일

+

보라

사용설명서

이들은 상대방이 무안해질 정도로 화를 내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아닌 답답한 상황에 터뜨리는 울분일 뿐이다. 그들은 쉽게 흥분하는 만큼 쉽게 잊는다. 그러니 드라마틱한 반응에 너무 놀라지 말고, 스스로 화를 삭이게 내버려 두면 된다.

다혈질의 가장 큰 단점은 성질이 급하단 점이다.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덕선이네' 가장 성동일과, 첫째 성보라가 이런 다혈질 대표주자다. 둘은 필터링 없는 맹비난으로, 주변인의 가슴에 스크래치를 남긴다. 동일은 데모하는 딸에게, "저년 대갈빡 털을 다 잘라버린다"고 무섭게 협박한다. 성질부터 부리고 보는 보라의 표현 방식엔 이웃 어른들까지 기가 눌릴 정도다. 그렇지만 이들의 대화법에는 수많은 괄호가 생략돼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힘든 것은 원치 않기에, 데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곤조곤 설득하는 법을 몰라, "미친년!"하고 소리부터 질러버린다. 스스로 어색해지는 사근사근한 감정 표현은 생략하고, 짜증 먼저 내뱉는다. 차가운 이성보단 뜨거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은 화를 낼 때도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온도로 사랑한다.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못해 서러운 둘째 딸에게 "염병하지 마!"라고 소리 질러 놓고서도, 엄마 몰래 초코케이크를 챙겨주는 것이 아빠 성동일이다. "추우니까 빨리 타세요"라고 툴툴거리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일정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달려와줄 줄 아는 사람이 성보라다. 다혈질들이 생략한 괄호 속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성질이 급해, '당신을 아껴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했잖아요' 등의 다정한 말들은 괄호에 넣어 생략했을 뿐이니까!

Reporter 김송미 songme920226@gmail.com

한번만 받아줘 사랑해서 그래

성균

+

동룡

= 까불이

까불거리면서 실없는 소리만 밥 먹듯 하는 사람을 보면 금세 짜증이 난다.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농담하고 장난치길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피곤해지기 때문. 류동룡과 김성균 역시 까불거리는 데 있어 2등이라면 서러울 이들이다. 동룡은 덕선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특공대, 춤 연습은 많이 했어?"라며 자존심을 건들고, 성균도 틈만 나면 철지난 유행어를 해 아내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는다.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면 좋으련만 끝까지 유치한 개그를 해서 매를 버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깐족거림도 알고 보면 다 챙겨주기의 일환이다. 친구와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이 남들 눈에 조금 요란하게 보일 뿐. 다들 각자의 고민으로 마음이 바쁠 때 친구들을 제일 살뜰하게 챙긴 사람이 바로 동룡이다. 덕선의 춤 연습을 가장 열정적으로 돕고,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정환에게 적재적소의 조언을 건넸으며, 특유의 깐족거림으로 대국에서 지고 돌아온 택이가 답답한 속을 뻥 뚫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성균도 마찬가지. 그가 입을 다문 잠시 동안 집 안이 얼마나 삭막해졌던가. 성균의 유난스러운 장난기가 레스토랑에서의 가족사진을 남겼듯, 그들은 까불면서 추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Reporter 배대원 bdw1707@naver.com

사용설명서

이들의 애정이 영원 불멸할 것이라 생각지는 말자. 이들 역시 사람이기에 받아주지 않으면 까불기도 지친다. 그러니 좀 귀찮더라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가끔은 상대의 장단에 맞춰줘라. 아주 좋아할걸?

몰라, 그냥 일단 할래

뇌순남녀 =

덕선

+

노을

뇌순남과 뇌순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 적은 많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성노을과 성덕선은 쌍문동의 대표적인 뇌순 남매다. 머리 좋아지는 유전자는 맏언니 보라에게 전부 몰렸는지 이들의 뇌는 순수하다 못해 하얀 백지 같다. 부모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카메라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잡으러 달려오는 학생주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덕선의 패기! 노을이 역시 매번 누나들 싸움에 등 터지면서도 전하라는(실제로는 전하면 안 되는) 말을 융통성 없이 곧이곧대로 전하는 걸 보고 있자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다. 하지만 앞뒤 생각하지 않는 순수함 덕에 행동력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친구들이 부상으로 장기자랑에 못 나가게 되자 덕선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남자친구들을 여고 장기자랑에 내보내는 대담함을 보인다. 그 결과 오매불망 그리던 '아하'는 그녀의 차지가 됐다. 누나들 사이에선 쫄보였던 노을이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겁 없이 일일찻집을 운영한다. 엄마에게 좀 얻어맞았다고, 학생부에 걸렸다고 해서 이들이 좌절할 것 같지는 않다. 아침이 밝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난 잘못은 깨끗이 잊고 환한 얼굴로 대문을 나설 테니.

Reporter 배대원 bdw1707@naver.com

사용설명서

일반 상식을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자. 공부보단 다른 데 관심이 많은 만큼 다른 분야에 해박할 가능성이 높다(무려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덕선을 보라).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분야를 재빨리 캐치해 그쪽으로 대화를 이끌어라.

그들이 숨겨둔 애정의 어퍼컷을 조심해

정환

+

미란

= 츤데레

사용설명서

그들과 빠르게 어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주 한잔이다. 술병이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레 입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싸늘하다. 가슴에 그들의 시선이 날아와 꽂힌다.' 무뚝뚝한 그들 앞에서 개그라도 쳤다간 웃음은커녕 면박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다. 남편이 혼신을 다해서 준비한 개그에 아내 미란은 시종일관 팔자 눈썹이다. 개그뿐이랴,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서툰 솜씨나마 정성스레 요리를 준비했을 때, 예뻐 보이려고 새 옷을 사 입었을 때 등 다양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무뚝뚝이를 곁에 둔 사람은 억울하다. '내가 당신 한번 웃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들이 우리의 노력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현에 서툴 뿐. 정환 역시 덕선을 좋아하지만서도 따뜻한 말보다 욕지거리가 먼저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무뚝뚝이. 하지만 비 오는 밤 그녀를 마중 나가는 그의 행동은 백 마디 말보다 훨씬 묵직한 애정이 담겨 있다. 그들이 어렵게 '표현의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를 조금씩 닫고 있을 무렵이다. 까탈스러움에 방심하고 있다가 훅! 들어오는 그들의 애정 표현에 그동안의 섭섭함이 녹아내린다. 치명타를 맞고 나서야 깨닫는 생각. '따뜻하다. 가슴에 그들의 사랑이 날아와 꽂힌다.'

Reporter 공태웅 dnlriver@naver.com

눈 딱 뜨고 사는 게 어때서

원칙주의자 =

선우

+

무성

사용설명서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원칙주의자로 한번 살아보자. 단, 그 친구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나는 나대로 장점을 찾아보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자기의 답답함을 반성할 수 있다.

차 없는 도로 위, 무단횡단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말한다. '괜찮아. 뉴욕에서도 신호 안 지키잖아?' 하지만 그들은 다르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답답하다. 주먹이 앞서는 선배랑 축구할 때는 패스 좀 해주고, 소중한 목걸이라도 풀라면 잠깐만이라도 풀고 있으면 안 되나. 김선우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성격이다. 물론 그의 강단은 알겠지만 피곤함은 옆 사람의 몫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설득을 해보려 한들 통하지 않는다. 99는 아직 100이 아니라는 엄격함. 그들의 셈법에는 '눈 딱 감고' 반올림하는 순간이 없다. 택이 아빠인 무성의 경우도 비슷하다. 아들이 파죽지세로 국제 대회 우승에 1승만을 남겨 두고 있는 이때, 온 동네가 호들갑 난리지만 정작 무성은 내색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 우승한 것 아닙니다. 신인한테 약해서 걱정이 돼요"라는 말로 찬물을 끼얹는다. 하지만 "답답한 양반아!"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이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아버지 없이 자란 선우는 이런 강단진 성격 덕에 스스로 큰 탈선 없이 자랐고, 어머니 없이 자란 택도 아버지 무성의 꼼꼼한 챙김 덕에 바둑에 더 집중했을 것이다. 그들의 셈법은 정확했다.

Reporter 공태웅 dnlriver@naver.com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일화

+

선영

= 오지라퍼

사용설명서

관심 받기를 원하는 만큼 타인을 신경 쓰는 사람이다. 다른 삶을 전해 듣는 것이 무료한 일상을 잊는 낙이다. 그러니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물어주고 또 나의 하루를 들려주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정이 싹튼다.

집 앞 골목은 아랫집 할머니, 앞 건물 준호 엄마, 옆 골목 아주머니의 집합소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주나 남자친구가 빼빼로 바구니를 줬다는 둥, 동훈 엄마가 쌍꺼풀이 풀려 재수술을 했다는 둥 남의 근황을 주고받았다. 들려오는 '남 얘기'는 곧 나 역시 그들의 화제라는 뜻. 내가 밤늦게 덩치 큰 남자랑 같이 있더라는 뽀삐 할머니의 목격담이 온 동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엄마의 귀에 들어갔을 땐 진저리가 났다. "대체 무슨 상관이람?" 일화(덕선 엄마)와 선영(선우 엄마)은 늘 평상에 앉아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수다를 떤다. 선영은 남의 집 '밤일'을 논할 만큼 참견을 좋아하고, 일화는 선우나 정환의 학교 성적과 성균의 다정함을 자기네 집 식구들과 비교하기 바쁘다. 하지만 적대감을 갖긴 이르다. 알고 보면 참견쟁이 선영은 택이네를 위해 매번 반찬이나 국을 나눠줄 정도로 세심하고, 비교쟁이 일화는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할 줄 아는 따뜻함을 지녔다. 애정에서 비롯된 그들의 관심은 미워할 수가 없다. 내가 '덩치남' 때문에 울적 했을 때, 곁에 다가온 아주머니들의 '남편보단 낫다'는 너스레와 '네가 훨씬 아깝다'는 오지랖에 피식 웃게 됐던 것처럼.

Reporter 임현경 hyunk1020@gmail.com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4차원 =

사용설명서

그들이 사는 세상을 존중하자. 굳이 다른 세상을 바꾸려하기보다 그 낯섦이 주는 새로운 매력에 기꺼이 빠져보자. 때로는 그들에게 배우고, 또 나의 세상을 알려주며 서로 다른 두 세상은 더 가까워질 거다.

정봉

+

택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답답한 모지리, 혹은 범접불가의 덕후. 이들은 확고한 자아로 주변 사람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결계를 친다. 밖에서 문을 두드려 봐도, 그들은 미적거리거나 엉뚱한 반응을 해 보는 사람 속을 터지게 한다. 택이는 젓가락질도 서툴고, 스스로 카세트도 틀 줄 모른다. 고민을 털어놓는 건 더더욱 못 해서 혼자 끙끙 앓는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선 '바둑의 신' 대신 '등신'으로 통한다. 정봉이는 공부 빼고 다 좋아하는 6수생. 전화번호부, 우표, 때로는 인형까지 그의 손에는 언제나 책 대신 다른 게 들려 있다. 가족들은 걱정 반 한심함 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는 전지전능하다. 택이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서툴지만 대신 내면에 에너지를 집중해 세계적인 바둑 기사가 됐다. 정봉이는 쉴 새 없이 쌓은 덕력으로 주변에 도움을 준다. 만사에 관심이 많기에 사소한 질문에도 지식백과 못지않은 대답이 줄줄 나오고, 막힌 변기 뚫는 법 등 생활 지식도 맥가이버급이다. 그러니 낯설어만 말고 그들의 세계를 받아들여보면 어떨까. 자꾸 답답하게 굴어도 보채지 말고 곁에서 알려주다보면 혹시 아니?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의 세계가, 귀한 복권이 돼 돌아올지.

Reporter 김유진 kyj379@naver.com

Pic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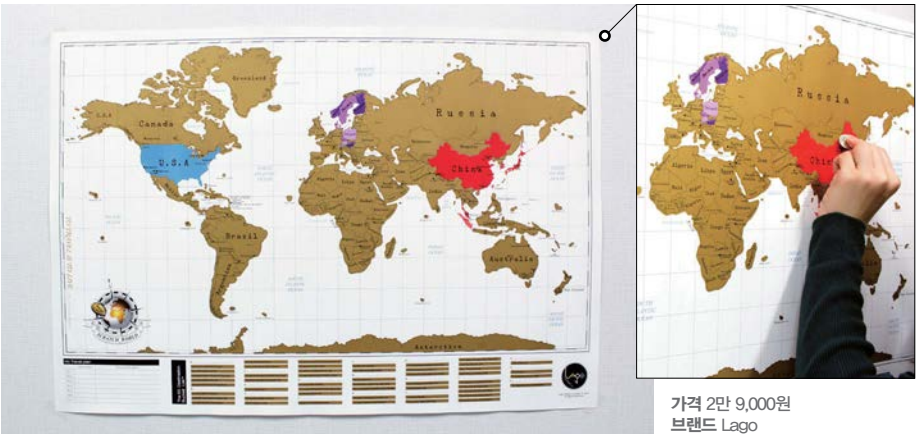
지도, 어디까지 만나봤니?
네가 좋아할지도, 너를 떠나게 해줄지도

긁으면 드러나는 알록달록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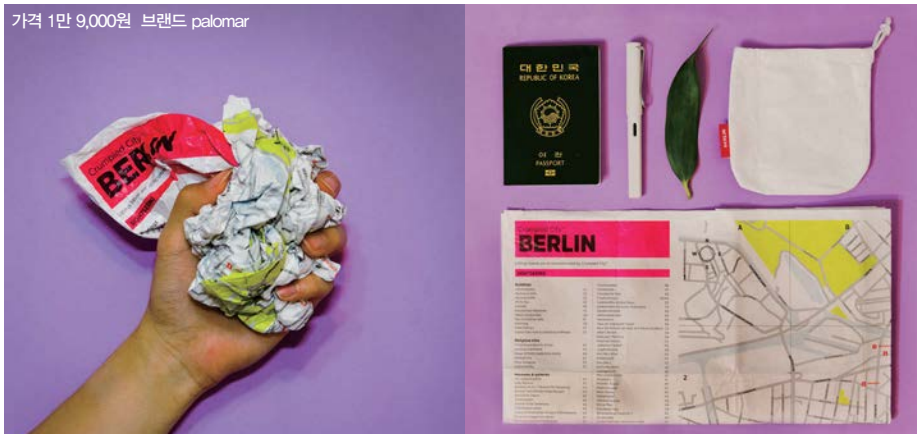
스크래치 월드 맵

첫눈에 보기에는 금박으로 덮여 있어 옛날 항해지도처럼 빈티지한 멋이 나지만, 동전으로 긁어내는 순간 반전의 매력이 드러난다. 금박 아래 나라별로 각기 다른 컬러를 숨기고 있어서, 솔솔 긁는 재미는 물론, 가고 싶은 곳이나 다녀온 곳만을 긁어내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도를 만드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지도 하단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곳'의 흥미로운 특징이 적혀 있다. 특징을 읽은 뒤 긁어보면 해당 명소의 이름과 나라가 나타나니 퀴즈를 풀 듯 알아가는 재미는 덤! 스크래치의 매력을 제대로 활용한 개성 만점 지도다.

Photo reporter 최진영 jinyoung4340@hanmail.net



가격 2만 9,000원
브랜드 Lago



가격 1만 9,000원 브랜드 palomar

비가 와도 구겨져도 찢어지지 않아요

구겨 쓰는 도시 지도

비가 퍼붓는 날 여행을 해본 적 있는지? 등에는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져가는 가방, 한 손에는 우산과 휴대폰, 또 한 손에는 종이 지도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했던 당신이라면 이 지도를 추천한다! 이태리 장인정신으로 만든(진짜 이태리에서 왔다) '구겨 쓰는 도시 지도'는 특수 재질로 제작되어 구겨져도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다. 여행 가방 안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도 걱정 없을뿐더러, 마구 구길 때 약간의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진다…. 런던, 도쿄, 파리, 홍콩, 로마, 바르셀로나 등 세계 19개 도시의 기념물,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디테일하게 표시되어 있어 도시 여행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Photo reporter 조혜미 hialienpika@naver.com

나의 온갖 욕망을 담아 꾸며봅시다

데코 트래블 월드맵 ver.2

이름 그대로 마음껏 꾸밀 수 있는 지도다. 종이 지도 위에 반투명 PVC 지도를 포갤 수 있어 글씨를 쓰고 지우는 것도, 스티커나 사진을 붙이고 떼는 것도 편리하다. 동봉된 20매의 스티커는 지도를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데 도움을 준다. 유아 시절 발산했던 미적 감각을 총동원해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보자. 하나의 콘셉트를 잡아 채워가는 것도 방법!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혹은 다녀왔던) 전 세계 관광 지도라든지, 먹방 지도라든지, 서식 동식물 지도라든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장소를 꼽은 지도라든지, 나라별 미녀/미남 지도라든지…. 3가지 버전에 각 버전별 컬러도 다양해 취향에 따라 골라 구매할 수 있다.

Photo reporter 조혜미 hialienpika@naver.com

가격 1만 3,800원
브랜드 INDIGO

지도가 거기서 거기지 뭐… 하는 생각, 지도는 그냥 '보는' 거라는 생각, 이 지도들을 만난 뒤라면 바뀔 것이다. 여기 꾸미고 구기고 긁어내고 색칠할 수 있는 특별한 지도들을 소개한다. 올 한 해 고생한 나에게,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번 겨울 어디로든 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지도.

Editor 김신지 sirin@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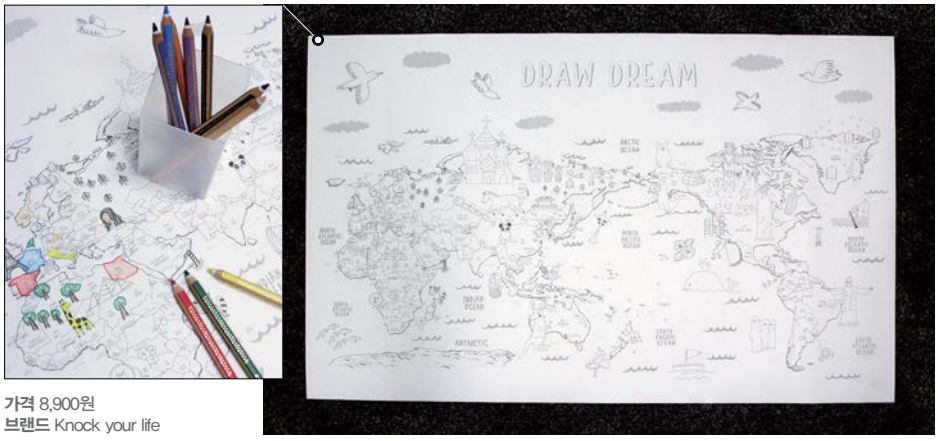
접어서 만드는 20면체 세계지도

다이맥시온 월드 맵

우리가 흔히 쓰는 세계지도는 항해술에 용이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와 달리 형태와 면적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지? 입체적인 지구를 평면에 옮기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이맥시온 월드 맵은 이에 착안해 구 형태의 지구를 20면체로 구성했다. 평면 전개도를 살살 뜯어내어 선을 따라 접은 다음 서로 끼워 맞추면, 5분 만에 지구본을 닮은 세계지도가 뚝딱 만들어진다.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함께 들어 있어 나란히 만들어 선반이나 책상 위에 올려두면 느낌 있는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다. 여행이 간절하다면, 침대 언저리에 두고 잠들기 전마다 '비나이다'를 삼창해보자.

Photo reporter 이초원 lcw588708@naver.com

가격 1만 2,000원 브랜드 GDL



가격 8,900원
브랜드 Knock your life

색연필 손에 들고 컬러링하는 재미

드로잉 월드 맵 ver.2

하얗게 비워진 세계지도를 보니, 색칠하고 싶은 욕구로 손가락이 꼼질거린다. 드로잉 월드 맵은 이름 그대로, 하얀 세계지도 위에 색연필과 데코 스티커 등을 활용해 여행에 대한 나만의 꿈을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지도다. 손 그림 느낌의 지도 위에 나라별 특징적인 동식물, 건축물 등이 귀엽게 그려져 있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컬러 테라피가 효과 있다더니, 실제로 색연필을 손에 쥐고 알록달록 색칠하다 보면 찌들어 있던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해 맑아진다.

Photo reporter 최진영 jinyoung4340@hanmail.net

고이 접어 가방에 넣고 다니는

패브릭 세계지도

커다란 지도를 손수건처럼 차곡차곡 접어 가방에 넣는다. 돌돌 말아본다. 빈티지한 광목 원단으로 제작되어 얼마든지 모양 변형이 가능한 '흐물흐물' 지도라서 가능한 일이다. 패브릭 세계지도는 각 대륙의 대표적인 동물이 그려진 버전 외에도, 디자인과 컬러에 따라 22종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원한다면 지도 아랫부분에 무료로 메시지를 인쇄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 오염에 강하고 손세탁도 가능하니 자신만의 활용법을 찾아내는 것도 재밌을 듯. (참고로 저는 유니크한 매력 뽐내는 무릎담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hoto reporter 이초원 lcw588708@naver.com

가격 1만 4,800원
브랜드 DQ company

Univ20.com : 이번 컬렉션의 가격정보는 여기서 univ20.com

통통 튀는 발랄한 여친이라면

베네피트 파티 호핀

베네피트의 스테디셀러가 모두 담긴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연두색 패키지가 눈에 띈다. 데아 리얼 마스카라, 하이빔 하이라이터, 김미 브라우 마스카라, 잇츠 포텐트 아이크림으로 구성되었다. 베네피트의 스테디셀러가 한곳에 모였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통이 독특한데, 두 겹으로 되어 있어 안쪽을 손으로 잡고 돌리면 그림이 같이 돌아간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홀리데이 컬렉션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연말. 한 해 동안 나 같은 X 만나느라 수고했다며 남친 여친은 선물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주 섬세한 티슈 같은 남자가 아니라면 여친 선물 고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엄한 것 가져갔다가 괜히 구박당하지 말라고 여친 연말 선물로 딱인 것들을 가져왔다. Editor 백수빈 bin@univ.me Intern 손수민

여친이 향수 덕후라면

필로소피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 드 퍼퓸

향수 있는데 사고 또 사는 여친, 향긋함을 몰고 다니는 그녀라면 향수를 선물하자. 필로소피의 대표 향수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다. 하얀 눈이 내리는 듯한,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예쁜 향수병이 포인트! 가격은 동일 용량의 원래 제품과 같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향은 깨끗하고 여성스럽다. 독하지 않고 은은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은은하고 깔끔한, 파우더리한 꽃향기.

섹시 청순 매력녀 여친이라면

나스 스티븐 클라인 홀리데이 컬렉션 치크 팔레트 디스페어

블러셔 장인 나스가 치크 팔레트를 내놨다. 이번엔 포토그래퍼 스티브 클라인과 컬래버레이션한 감각적인 패키징을 선보인다. 팔레트에는 총 4가지 색상의 블러셔가 들어 있는데, 왼쪽부터 니코, 세비지, 에소테릭, 퍼로셔스 색상이다. 세비지 색상은 발색이 아주 좋아 소량만 발라도 청순한 코랄 빛 볼을 표현할 수 있고, 퍼로셔스는 펄이 있는 은은한 핑크 빛으로 분위기를 한껏 섹시하게 만들어준다.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월풀 욕조를 좋아하는 여친이라면

러쉬 잇츠 크리스마스 디어 기프트

여친이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보디용 제품도 좋다. 러쉬의 잇츠 크리스마스 디어 기프트는 향긋한 비누와 샤워젤, 보디로션, 배스밤, 버블바 이렇게 총 다섯 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프트답게 금펄이 잔뜩 묻어 있다. 사슴 모양 케이스도 귀엽다.

풀 메이크업을 즐기는, 패셔니스타 여친이라면

에스쁘아 센스 오브 시크릿 메이크 오버 팔레트

가격 대비 최고! 아 팔레트 하나면 색조 화장은 끝. 아이섀도, 블러셔, 하이라이터, 아이라이너, 아이브로까지 들어 있다. 홀리데이 컬렉션에 걸맞게 색감이 다소 화려하고 강하다. 평소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자친구라면,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

귀여운 것 보면 기절하는 여친이라면

라네즈 럭키 홀리데이 메이크업 팔레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사용할 것 같은 귀여운 메이크업 팔레트. 미니 립 젤 2종, 네일 폴리쉬와 네일 스티커, 아이섀도 2종으로 구성되었다. 아이섀도는 베이지와 마르살라 색상이며 펄감이 돋보인다. 립 젤은 맑은 형광빛 코랄 색상과 핑크 빛이 도는 쨍한 레드 색상이다. 네일 폴리쉬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드다. 네일 스티커도 나름 귀엽다. 전체적으로 밝은 핑크/레드 톤 메이크업 최적 팔레트다.

핫한 트렌드에 민감한 여친이라면

에스쁘아 센스 오브 시크릿 "노웨어 M 히든 센슈얼

아이섀도가 있는 판을 들어 올리면 하이라이터와 블러셔가 등장한다. 왼쪽에 있는 립스틱은 마찬가지로 에스쁘아의 홀리데이 컬렉션 제품이다. 요즘 가장 핫한 말린 장미색으로, 블링블링한 케이스가 돋보인다.

책장을 우러러
한 점 배고픔이
없기를
univ20.com으로

1분 만에 당신을 배고프게 할 문학 6선

잘 땐 자더라도, 야식 한 그릇 정도는 괜찮잖아?

먹방이나 음식 영화를 보며 행복감을 느끼듯, 음식 묘사가 잘 된 책은 읽으면서 행복해진다. 활자에 갇혀 있는 음식들이 뇌에서 존맛 비주얼로 살아난다. 나의 침샘을 폭풍자극했던 문학들을 모아봤다. 인용한 책들은 음식 묘사뿐만 아니라 문체와 내용도 좋으니 읽어보시길. 단, 주의 사항은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읽을 것.

Editor 양주연 chuu@univ.me Intern & Illust 위지영 hi_wjy@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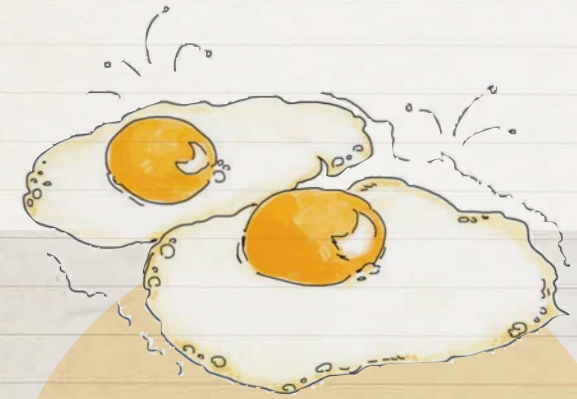
국수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시 〈국수〉, 백석–

백석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 북한에서는 평양냉면에 동치미 육수를 부어 먹는데다가, 백석의 다른 시에서 메밀국수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 시 속 국수의 정체는 평양냉면일 가능성이 높다. 책 『백석의 맛』에 따르면 백석의 시에는 100여 가지의 음식이 등장한다. 그의 시를 읽으면 가본 적 없는 이북의 시골 풍경과 냄새가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듯해진다.

*댕추가루 : 고춧가루 *탄수 : 석탄수



계란 프라이

나는 편애하는 계란 프라이에 대해 생각하고 만다. 어렸을 때, 거뭇거뭇하고 묵직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계란 프라이를 멋지게 구웠었다. 노릇노릇한 테두리는 프릴이나 레이스처럼 물결치고, 흰자는 올록볼록해도 노른자는 적당히 익은 계란 프라이. 접시에 옮길 때면 노른자가 터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아무리 조마조마해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에세이 『부드러운 양상추』 중 「프라이팬과 계란 프라이」, 에쿠니 가오리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계란 프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비웃지만 겉은 바삭하되 반숙 상태의 완벽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다. 직접 해 보면 안다. 100%의 계란 프라이를 구워 맥주와 함께 먹고 있자면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꼬막

양념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대로도 꼬막은 훌륭한 반찬 노릇을 했다.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 (…) 벌교에서 물 인심 다음으로 후한 것이 꼬막 인심이었고 벌교 5일장을 넘나드는 보따리 장꾼들은 장터거리 차일 밑에서 한 됫박 막걸리에 꼬막 한 사발 까는 것을 큰 낙으로 즐겼다.

–소설 『태백산맥』, 조정래

읽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꼬막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마침 꼬막이 제철이다. 추천하는 식당은 당산의 〈참새방앗간〉. 산처럼 쌓여 나오는 뜨끈한 꼬막을 까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자연스레 술이 당긴다.

그는 오븐에서 따뜻한 계피롤빵을 가져왔는데, 겉에 입힌 아이싱이 아직 굳지도 않았다. 그는 탁자 위에 버터를 놓고, 버터를 바를 칼을 가져왔다. 그러고 나서 빵집 주인은 그들과 함께 탁자에 앉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들이 각자 접시에 놓인 롤빵을 하나씩 집어 먹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뭔가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오. 더 있소. 다 드시오. 먹고 싶은 만큼 드시오. 세상의 모든 롤빵이 다 여기에 있으니."

—단편집 『대성당』 중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레이먼드 카버

아이의 생일날,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에게 빵집 주인은 계피롤빵을 내어준다. 갓 구운 따뜻한 빵 앞에서 부부는 아이가 죽고 처음으로 식욕을 느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비합리적인 세계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온기다.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된다.

계피롤빵

잘 마른 굴비도 껍질과 살 사이에는 기름기가 많아 북어처럼 메마르지 않았다. 점심 반찬을 하려고 짝짝 찢고 나면 손바닥에 기름이 흘렀고 육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일품이었다. 특히 단단하게 잘 마른 알맛은 조금 맛본 어란 맛 못지않았고, 빛깔은 투명한 조니워커 빛깔이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생선 대가리나 꽁지를 차지할지언정 아들과 며느리를 음식으로 충하하는 일이 없었는데도 어란만은 아들만 먹이려는지 깊이 껴두어 나는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다.

—소설 『그 남자네 집』, 박완서

소설 『그 남자의 집』은 본격 위장테러 소설로, 주인공인 '나'의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요리해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다. 박완서 작가는 시어머니의 음식 실력을 맛 묘사로 인증한다. 역시 토속 음식 묘사의 대가, 박완서 작가다.

굴비

토끼정의 고로케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글로 표현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꽤 큰 고로케 두 개가 접시에 담겨 나오는데, 무수한 빵가루가 바깥을 향해 톡톡 튀듯이 알알이 서 있고, 기름이 쉭쉭 하는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건 거의 예술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을 삼나무 젓가락으로 꾹 누르듯이 잘라서 입에 넣으면, 튀김옷이 바삭 하는 소리를 낸다. 속에 든 감자와 쇠고기는 녹아들 것처럼 뜨겁다. 감자와 쇠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대지에 뺨을 비비고 싶을 정도로 잘 자란 감자—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와, 주인이 엄선해서 구입한 쇠고기를 커다란 부엌칼로 잘게 썰어 섞은 것이다.

—에세이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 중 「토끼정 주인」, 무라카미 하루키

고로케를 먹을 때마다 하루키의 이 에세이가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른다. 도쿄의 실제 〈토끼정〉 가게는 현재 사라진 상태. 결국 이 고로케는 상상 속의 맛이 되어버렸다. 대지에 뺨을 비비고 싶은 맛의 고로케를 만나신 분은 위의 메일로 위치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고로케

Weekly Style :

머플러 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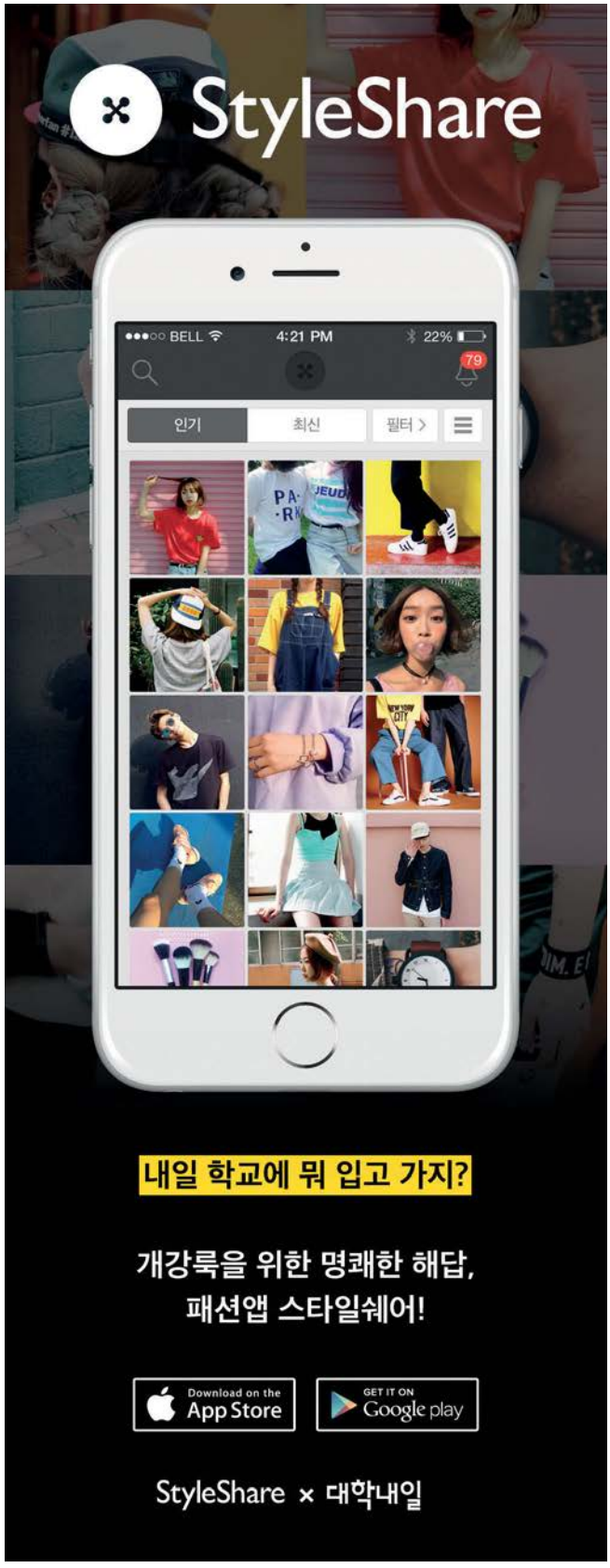
StyleShare

아름다운 목선도 추울 땐 가려야 한다.
그럴 땐 머플러를 둘러주시라.
추위와 패션을 한 방에 해결해줄 믿음직한 녀석이 될 것이다.

Guest Editor 스타일셰어 윤진 jin.youn@styleshare.kr

얇지만 따뜻하다
가볍게 감기는 쁘띠 머플러
#레이버데이 #6만원대
@lini_z

질리지 않고 오래
맬 수 있는 투톤 스타일
#92volt #2만원대
@최지운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Photographer 배승빈

"다큐멘터리 PD가 되려면 수능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 '들리는 세계'과 '들리지 않는 세계' 가운데 서서 서로를 이해시켜야 했던 아이. 이 아이는 낯선 세계의 문턱을 겁 없이 넘나들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나갔다. 26살의 나이에 벌써 펴낸 책이 세 권, 연출한 다큐멘터리는 두 편.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떠난 여행담은 『길 위의 학교』로 남았고, 동명의 책과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는 농인(청각장애인) 부모님이 주인공이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인지 물으니 대답이 바로 나온다. "엄마의 엄마, 할머니."

반짝이는 나의 세계

영화감독 겸 작가 이길보라

지난번에 연락드렸을 땐 야마가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참석 중이시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는 건 감독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상마다 달라요. 어느 영화제에서 어느 상을 주느냐에 따라. 야마가타에서는 상보다는 영화제 자체가 엄청 좋았어요. 보통 영화제는 마켓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야마가타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작가들끼리 모여 서로 'Cheer up!'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사려 깊은 관객 분들도 기억에 남아요. 야마가타가 시골 도시라 거리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영화관은 꽉 차 있어요. 영화 전공자나 평론가가 아니라, 그냥 지역에 사는 주민들인데 다큐가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도, 관객도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제일 앞에 '오바짱(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주시는데, 그 기운이 참 따뜻했어요.

책 『반짝이는 박수 소리』엔 부모님이 보라씨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쭉 나와요. 제 영화 상영회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부모님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엄마는 그런 거 없거든요. 단지 고마운 건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보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연애에 실패하고, 작업이 안 풀려도 계속 일어설 수 있는 건 늘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수어와 음성언어, 이 두 가지 언어를 하면서 자라셨잖아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수어와 음성언어는 체계가 아예 달라요. 표정, 공간, 몸짓을 다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단어나 상황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글 쓰고 영상 만들 때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겠죠.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가 답이다
문정아 중국어
Since 2003

BORA KIL LEE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8개월 동안 동남아로 봉사여행을 떠났어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들리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의 '들리는 세상'을 통역하며 자랐잖아요. 그래서 낯선 세계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어요. NGO 활동가라든지, 다큐멘터리 PD가 되어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죠. 근데 진학 상담할 때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워라. 지금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보다 성적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영상도, 동남아시아 문화도 아니고 수학 문제를 풀라니까. 전 다큐멘터리 PD라는 명함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잠깐 쉬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행이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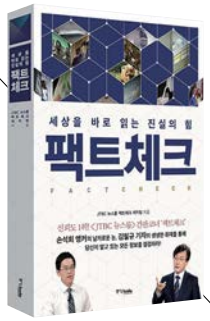
당시 사람들을 만나 여행 계획서를 보여주고 후원 자금을 모았어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건데, 사람들에게 어떤 점을 어필했던 거예요? 좀 뻔뻔하긴 한데, 그때 저에겐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행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NGO 활동가나 다큐멘터리 PD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배움의 장이다, 나중에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할 '이길보라'라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다! 뭐, 직접적으로 돈을 달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는 비전을 듣고, 사람들이 후원한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 돈보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났던 것 자체가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침낭이나 샌들 같은 물건을 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와 마음을 함께 주시거든요. "인도에 가서 이 사람들을 꼭 만나봐, 좋더라." 그 마음들이 여행의 기억 못지않게 소중한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과 여행에서 배운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행에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요. 예를 들어 티베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가요. 거기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숙소에 와서 찾아보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누군지, 이곳이 왜 망명지가 되었는지. 교과서에서 봤다면 다른 나라 이야기, 먼 세상 이야기라 생각하고 넘겼겠지만 그곳에선 진짜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진짜 필요해서 하는 공부랑 "시험 칠 거니까 공부해" 해서 하는 공부는 달라요. 두 개가 병행되어야죠. 몸으로 부딪쳐보기도 해야 하고, 머리로도 이해해야 하고.

다큐 〈로드스쿨러〉를 보면 어떤 분이 "하기 싫은 것도 좀 해보고 싶어서 대학에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라 씨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죠.(웃음) 자유엔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몇 개월은 가능하죠. 누구는 3개월 동안 자고, 누구는 3개월 동안 게임만 하고, 누구는 6개월 동안 기타만 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타만 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뭘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요. 저는 이런 시간들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 대학생, 회사원 모두 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동남아 봉사여행을 떠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진짜 공부'가 뭔지 알게 된 거죠. 학교가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학교를 그만둔 직후엔 '학교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삶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을 공부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다면 학교에 다녀야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로드스쿨러죠. 학교 안 공부, 학교 밖 공부, 연애, 여행 등 하고 싶은 게 뭔지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만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Interview :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많은 정보가 부유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즐겨 보긴 하지만 내용에 대해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TV나 신문 기사는 다르다. 그들은 '언론'이라는 권위를 등에 업고 모든 것을 '사실인 양' 보도한다. 그러니 그들을 믿을 수밖에. 하지만 과연 언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일까? 어디까지 믿고 얼마큼 걸러서 들어야 하는 걸까. 이 의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가 있다. 손석희 앵커와 함께 JTBC 〈뉴스룸〉에서 '팩트 체크' 코너를 진행하는 김필규 기자다.

Editor 이민석 min@univ.me Photographer 박광희

정말,

JTBC 〈뉴스룸〉 김필규 기자

팩트입니까?

100% 사실은 없어도 진실을 향할 수는 있다

JTBC 〈뉴스룸〉에서 '팩트 체크'란 꼭지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팩트 체크란 말 그대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포맷으로, 주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두고 참, 거짓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올해 〈뉴스룸〉 개편 때 손석희 사장이 "네가 팩트 체크 코너를 맡아서 해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손 사장이 걸어놓은 조건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 무조건 나 혼자 해야 한다. 둘째, 매일 해야 한다. 그 조건을 맞추려다보니 미국처럼 매번 정치인의 발언만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무리였다. 그러다보니 한국형 팩트 체크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같은 도시 괴담이나 잘못된 경제 통계, 정부의 복지 공약 같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게 됐다.

'사실이라고 일컬어지는' 보도 내용의 팩트를 재확인하는 것인데. 아이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시의성을 따진다. 아무리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뉴스에 대해선 시청자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두 번째로는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르고, 그다음은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아이템으로 선정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른다. 데일리로 하다 보니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깊이 취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여러 부서에서 일하며 쌓은 내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다루는 거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뉴스의 생명은 신뢰도이다. 팩트를 파헤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취재하는 건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는 구글링을 통한 검색과 관련 주제 논문을 참고한다. 그다음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검증 과정을 거치지. 웹 서칭, 문헌 참조 모두 중요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지 못한 살아 있는 팩트를 캐내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김필규 기자의 '팩트 체크' 코너가 책으로 출간됐다
출판사 중앙북스
가격 1만 5000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통계 수치나 전문가의 코멘트도 결국 누군가의 주관이 개입된 것들 아닌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위해, 그 분야에서 가장 객관적인 전문가들에게만 물어본다. 특정 이해 관계자나, 어떤 정파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인물군은 가장 먼저 제외한다. 교수 멘트를 딸 때도 어떤 당의 자문 위원 경력이 있거나 기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거나 했다면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무리 권위 있는 분일지라도 리스트에서 배제한다. 논문도 당연히 박사 논문에서만 조사를 하되, 이 논문에 대한 팩트를 크로스 체크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진실에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선 반박의 여지 없는 '100% 팩트'라고 확신하는지? 이 세상에 100% 팩트란 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나도 회의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말이 100% 맞는 것이라고 시청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깐. 완전무결한 정답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늘 어렵고 조심스럽다.

PROMPTER
ROMPTER

20대가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유

KIM PHIL KYU

중장년층은 '공중파에서 보도하는 건 모두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팩트'라고 믿는다. 하지만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다. 기성 언론의 보도에 큰 관심을 갖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 개인적으로 보도 내용에 대한 댓글이나 SNS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민감하게 보는 편이다. 같은 내용을 놓고도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에서의 반응이 각각 다르니깐. 그만큼 중장년층보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과 시각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지.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에 대해선 미디어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각 매체별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사안들에 대해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방향을 정해놓고 가다보니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대신 그들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한다.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신문이나, 뉴스 하나쯤은 정해놓고 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방송이든 신문이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보도한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시민들을 유권자라고 생각해, 그들이 선거 때 좀 더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려는 마음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그런 면에 있어 개인적인 판단의 촉을 높이기 위해 본인 취향에 맞는 매체 하나쯤은 꼭 봤으면 좋겠다. 방송도, 신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다보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있다. 모바일상에서 클립이나 꼭지만 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다양성이나 깊이 측면에서 조각조각 보는 것보단 통으로 하나의 매체를 정해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영화 〈특종: 량첸살인기〉를 보면 실제 사실과 달리 살인자의 이야기가 훈훈한 미담으로 둔갑돼, 인터넷을 타고 퍼지는 내용이 나온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도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재밌게 본 짤방 하나가 있다. 링컨 사진에 말풍선을 그려놓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 명언들이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내용이었다. 그만큼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의 눈과 귀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쏠려 있다. 이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많은 매체들이 카드뉴스나 영상 클립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플랫폼이 무엇이냐는 중요치 않다. 핵심은 '신뢰도'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손석희라는 사장을 모시며 절실히 느낀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뷰가 늘 60~70만 나온다. 이건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본다는 증거이다.

기존 미디어가 무게감 있게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 젊은이들이 '팔랑귀'가 돼가는 것 같다. 동의한다. 기존 미디어들이 신뢰를 잃어서 사람들의 눈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거다. 〈뉴스룸〉도 신뢰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금보다 노력해서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종편이 처음 출범할 때 많은 이들이 대기업과 정권의 나팔수가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JTBC 〈뉴스룸〉은 손석희 사장을 필두로 기존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과 시각을 다룬다. 〈뉴스룸〉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건 사장님이 할 얘기라서….(웃음) 나는 리더의 의견에 공감할 뿐이다. 처음에 손석희 사장이 얘기했던 게 '사실, 공정, 균형, 품위'였다.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조직원들에겐 뜨겁게 다가왔다. 언론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었으니까. 특히 '공정'이라는 부분에선 많은 매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종편을 비롯한 언론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면서 시청률만 좇고 있는 걸 보며 '품위'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다. 그러다보니 당연한 명제이지만 울림이 컸던 거지. 이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향할 것이다.

〈뉴스룸〉의 보도는 퀄리티가 훌륭하지만, 공중파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널리 퍼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분명 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청률만 놓고 보면 분명 아쉽다. 하지만 '영향력'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치부에 있는 막내 기자 얘기를 들으니, 조금 과장이 섞였겠지만, 여러 기자들과 함께 정치인과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만 보고 얘기한다고 한다.(웃음) 취재 현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온도차는 분명 있다.

내가 팩트 체크 하는 이유? "사장님 나빠요"

> 많은 매체들이 카드뉴스나 영상 클립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플랫폼이 무엇이냐는 중요치 않다. 핵심은 '신뢰도'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손석희 사장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 바로 옆에서 보고 느낀 손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츤데레'이시다. 가끔 〈팩트체크〉 팀 방에 불쑥 들어오셔서 "야~ 겨우 7분짜리 만드는 데 7명이나 모여서 뭐하는 거야~ 생산성 떨어지는 것들!" 이러고 가신다.(웃음)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로는 화면 밖에서나 안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일관된 분이다.

'손석희 사장은 담배를 하루에 딱 하나만 피우는 독한 사람'이란 소문이 있다. 팩트체크 부탁한다.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무근이라더라. 14년 전에 담배를 끊고 지금은 일체 손을 안 대신다고 한다. 또 다른 소문 중엔 예전 MBC 파업할 때 어떤 여중생의 목격담이 있다. "텐트에서 이상한 옷 입고 어떤 남자가 부스스 나왔는데, 그게 손석희더라. 근데 갑자기 전화를 꺼내 들더니 회사 관계자에게 쌍욕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얼마 전에 여쭤보니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셨다.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 큰돈을 버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언론인을 꿈꾸고 있다. 기자가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겠지. 요즘은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플랫폼이 많이 생겨 이런 점들이 많이 희석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매체의 영향력은 유효하다. 기자 선배들이 쌓아온 정체성을 갖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니깐. 인터넷에 개인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과 매체 보도의 무게감이 똑같다면 아무도 기자를 하려고 안 하겠지. 대학생들을 보면 제2의 손석희를 꿈꾸며 언론인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멋있는 모습만 생각하기보단, 그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걸어온 험난한 길에 더 주목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열정의 원동력이 궁금하다. 기본적으론 손석희 사장님이 시켜서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웃음) 솔직히 처음엔 3개월을 못 갈 거라고 봤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이게 인기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끝날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찌어찌 끌고 왔다. 6개월이 됐을 땐 한계치에 다다랐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돌아온 답은 "웃기지 마라", 그래서 계속하게 됐다. 물리적으론 15년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본 게 처음이다.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하겠단 생각이 든다.

Think :

Editor 김신지 sirin@univ.me Illustrator 전하은

네가 싫어하는 것들이 너를 말해준다

어렸을 땐 멋진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다. 어른이 되면 다 멋져지는 줄로만 알았던 게 함정이지만. 오류는 빨리 수정됐다. 사회적 관계망에 접어들어 멋지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실망할수록, 다짐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멋진 어른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나라도) 멋진 어른이 되어야지. 동경하던 어른에게 실망하거나, 가까운 어른에게 상처 입거나, 처음 만난 어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생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한참이나 뭘 모르던 시절의 야무진 다짐이었구나 싶다.

그리하여 지금 내 (다짐도 아닌) 바람은 오직 하나다. 더 나빠지지만 말자. 100세 시대이므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긴 더욱 어려워졌다. 어렴풋이 셈해봐도 70년 정도는 성찰과 경계의 자세로 살아야 한단 소린데, 그 길이 지루하고 고단해서라도 중도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다. 시간이 쌓일수록 분별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과연 나의 주장이 소신인지 아집인지, 누군가에게 하는 조언이 사려 깊은 충고인지 안 하니 못한 참견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걸 분별하

는 게 어른의 일 아니냐 묻는다면, 여기서 또 다시 오, 나의 멘토님—소설가 김연수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뭘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혜로워지다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런 게 사람이라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는데요. […] 단지 뛰어난 사람들만 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빠지게 돼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점점 지혜로워진다면 누구나 그 사람 생의 '가장 훌륭한 사람'인 상태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뭇 어른에 대한 실망이 멋진 어른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느낀 실망들이 모두 내가 이미 아는, 내가 가진 모습들에서 왔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헤르만 헤세의 문장을 보고 느꼈던 최초의 충격이 떠오른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일부인 어떤 점을 발견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새로운 말도 아닌데 그때의 내 가치관이란 성냥으로 탑을 쌓듯 얼기설기한 것이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싫은 건 싫은 줄로만 알았지 그것과 나를 연결시키진 못했던 것이다. 아, 내가 싫어한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구나. 그 최초의 각성은 얼얼한 깨달음과 함께 왔다. 당연한 말이다. 무언가를 싫어한다는 것은 '알아본다'는 것인데,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볼 수는 없다. 저 저열함을, 저 무례함을, 저 비겁함을 모르고서 싫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언가를 싫어할 때, 또한 두려워진다. 이것은 내가 아는 저열함이구나. 내가 가진 비겁함이구나.

그런데도 무언가를 싫어하며 그 싫음을 공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대체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는 기저가 그 비난의 목소리에 힘을 싣게 한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비겁함을 싫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는 내안의 비겁함에 눈을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안의 비겁함이 눈을 뜨고 바깥의 비겁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진다. 하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실은 내 안에도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무언가를 싫어할 때 혹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 모습이 문득문득 내게 발현되진 않는지 경계하는 것.

'왜 싫어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잘 정리된 서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왜 싫어하는지' 아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을 왜 싫어하는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왜 좋아하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좋아하는 것은 사실 그냥 좋아도 된다. 좋아함의 층위에서 "그냥 좋아"라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싫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좋아"는 좋다는 감정이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선다는 얘기로도 들리지만, "그냥 싫어"는 더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왜? 불편하니까. 싫은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러나 '왜 싫어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잘 정리된 서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어디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는 사람. 나의 호오를,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지를, 나의 가치관에 나란한 것과 반하는 것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오해할 가능성도 훨씬 낮을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자기소개 공란을 채워 넣어야 할 때, 캐주얼한 자리에서 몇 마디 말로 나를 소개해야 할 때,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곧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비율로, 싫어하는 것들 역시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부분들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은 어쩌면 내 안의 터에 자라는 잡초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수시로 들여다보며 제때 뽑아내지 않으면, 한 번 내린 비에 손쓸 수 없이 번져버리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얼마 전 미러 노트를 샀다. 그런 걸 파는 건 아니고, 손바닥 크기의 조그만 노트를 사서 친구와 함께 미러(Mirror) 노트라고 이름 지었다. 이곳에 하나씩 적기로 한다.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나를 비춰볼 때마다 금세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아주 솔직하게 적는다. 다시 생각해도 낯 뜨거운 나의 알량했던 행동들, 누군가에게 느낀 잦은 실망, 저러지만 말아야지 싶었던 행동들까지. 싫어하는 것들의 이유를 밝혀두지 않으면, 적어서라도 기억해두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해도 나빠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이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간 내가 겪어온 경험이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주어, 살아 보니 그렇게 말했던 내가 틀렸더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노트에 적어 지금의 마음을 미래의 나에게 미리 보내둔다. 아마 이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한다. 목표는 제자리걸음! 최선을 다해서, 더 나빠지지만 않는 어른이 되는 것이 지금의 내 바람이다.

고용노동부가 소개하는 굿Job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웃는 청년취업인턴제

청년과 기업이 같이 웃는다! 이 어려울 것만 같던 일이 실현되고 있다.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를 통해서다. 도대체 어떤 제도이길래,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을지, 지금부터 소개한다.

취업난과 인력난을 한 번에 해결

인턴제를 신청한 청년은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인턴을 마친 후에는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도 일할 수 있다. 이로써 좋아지는 건 비단 청년만은 아니다. 기업에게도 이득이다. 기업은 그들과 '캐미'가 잘 맞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질병처럼 앓아온 취업난과 인력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만을 위한 것도, 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 나는 해당할까?

여기서 지칭하는 '청년'이란, 첫 직장을 찾고 있는 34세 미만의 이들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조건은 확장된다. 이를테면,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까지 연동해 만 39세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1년을 넘지 않았다면 괜찮다.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아, 나는 대학생인데'하며 아쉬워할 독자들도 걱정하지 말자! 휴학생 혹은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단다.

강소 ·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

일하게 될, 즉 인턴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도 궁금하다. 청년들은 어떤 기업에서 일하게 되는 걸까? 청년들은 중소기업, 혹은 강소 및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0%를,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30%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 근로자 5인 이상

단,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강소 및 중견기업

◇ 제조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7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500명 이하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청년취업인턴제에 관한 오해와 편견

말해 Yes or No ~ ♪

1 인턴은 단기간 근무하는 임시직에 불과할 것이다?

NO! 청년인턴제 취업실적을 보면 인턴수료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90%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규직 채용 비율

2012	2013	2014
90.4%	90.0%	90.0%

2 기업에서는 생각만큼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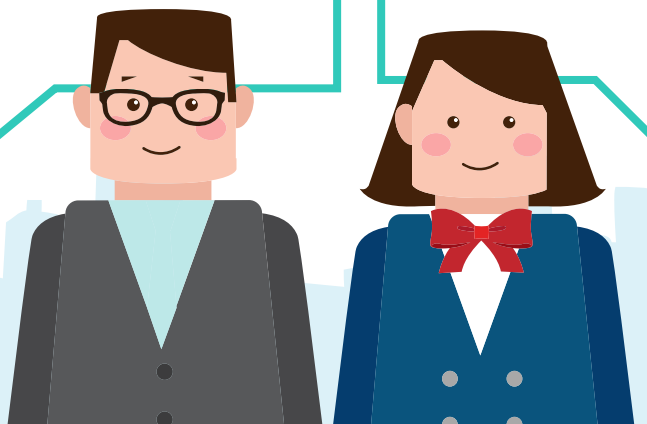
NO! 조사 결과는 달랐다. 2014년 11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턴제 성과를 분석한 바(「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다수의 기업에서 인턴제 참여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인력을 통해 업무에 활기가 생기고, 사내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평도 주를 이뤘다. 기업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역시나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3 낮은 임금에 근무여건이 열악할 것이다?

NO! 인턴제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최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약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월 128만 원, 2016년엔 월 13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제 2015년 평균 약정임금은 152만 원을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턴 중 18% 이상은 월 230만 원 이상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또한, 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이나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납을 한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분류돼, 인턴제 진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인턴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인턴 기간 동안 그에 마땅한 임금을 받는 것만이 인턴제의 장점이었다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소개하지도 않았을 테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가하는 인턴들의 경우, 인턴직을 수료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시, 또 다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최대 300만 원가량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 그중 하나. 기업에도 매월 인건비 명목으로 50~60만 원씩을 지원하니, 이에 대해 기업이 부담을 느낄 일도 없다. 게다가, 정규직 전환 후, 6~12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측에 최대 39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리얼 스토리 with 청년취업인턴제

혹시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 가우뚱하며 지원을 망설이고 있을 독자들을 위해 리얼한 체험담을 준비했다. 4인이 직접 말하는 솔직 토크, 일명 **청년취업인턴제는 OO이다!**

L 양의 스토리
㈜필코리아 광/RF팀

" 청년취업인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이다! "

인턴 3개월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 활용해 볼 기회였죠. 전자통신기기 기계조작 업무는 물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부품 하나하나의 의미와 중요성, 업무를 대하는 자세, 책임감 등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업무 그 이상의 다양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인턴제 덕분에 3개월 만에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걱정하시는 모든 청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 인턴에 도전해 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청년취업인턴제는 정직한 기회다! "

인턴으로 들어왔지만 바로 실무에 투입해주신 덕분에 선배님들과 함께 재래시장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자료를 찾고 실사팀과 협의하곤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직접 논의할 기회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가슴 떨리게 좋았던 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4개월 정도 인턴을 했는데,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확신합니다. 노력한 만큼 배우고 성취하는 정직한 기회, 청년인턴제를 놓치지 마세요!

K 군의 스토리
포커스 컴퍼티/공공정책팀

Y 씨의 스토리
㈜위드텍

" 청년취업인턴제는 기업의 동반자다! "

우리 회사는 대전에 있는 전자기 측정과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저희는 인턴참여자들의 처우와 업무 전문성,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턴관리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인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지원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죠.

OJT 교육을 통해 회사의 분위기와 업무를 익히는 것은 물론,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NCS기반의 학습프로그램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4대 보험, 퇴직연금, 상해보험, 인센티브, 장기근속포상, 인턴기본급 166만 원, 정규직 전환 시 241만 원 지급 등 인턴의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에 입사한 인턴 12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각자의 직무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인턴지원제! 우리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청년취업인턴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다! "

㈜코메스타는 고속 무선전송장치, 무선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통신관련장비 제조기업입니다.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일은 책임감, 꼼꼼함,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매우 급하게 돌아갈 때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턴 기간은 바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업무를 배우는 시간 필요하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인턴기간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껍데기를 깨고 나와 가능성 있는 직원으로 거듭나는 거죠. 내가 책임감과 성실성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꼭 청년인턴제를 지원하세요.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L 씨의 스토리
㈜코메스타 원가구매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따끈 따끈 따끈 미!

STEP 1

www.work.go.kr/intern

www.work.go.kr/intern 으로 이동 후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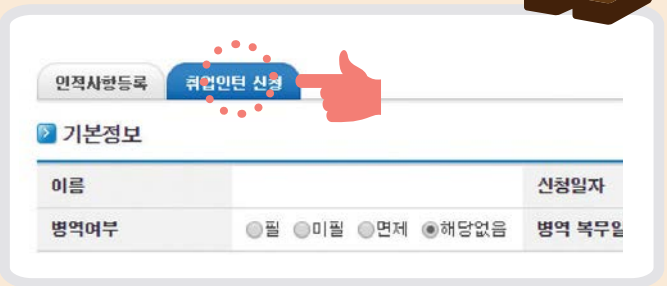
STEP 2

홈페이지 상단 '인턴신청' 클릭! 〉 인턴참여현황 메뉴의 '인턴신청' 클릭

STEP 3

취업인턴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STEP 4



인턴신청 클릭. 이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에 승인!

Let's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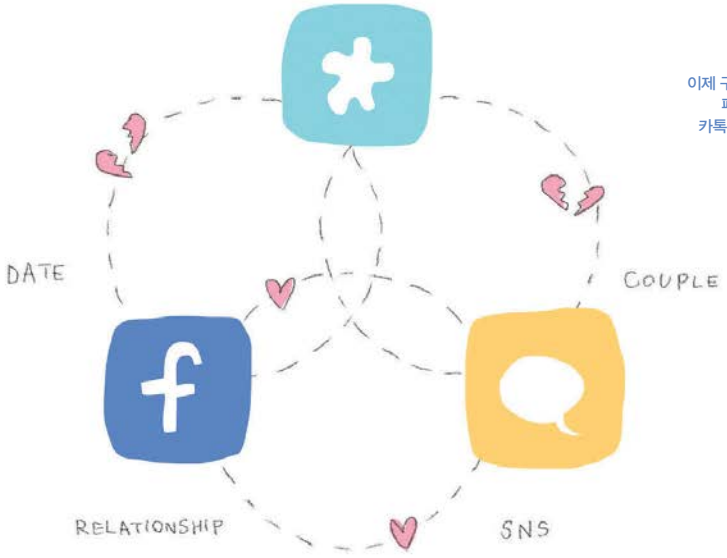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채용소식-굿Job'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의견, 알고 싶은 소식 등을 자유롭게 전해 주세요. 매주 힘이 되는 조언이나 참신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을 선정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의견 접수: 이메일(moel_goodjob@naver.com 상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기프트콘(3명)

20's Voice :

Freelancer 김주리 chhieut@naver.com Illustrator 전하은



디지털 시대의 이별

남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졌다. 그동안 페이스북 프로필은 '연애 중'이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연인과 함께였다. 핸드폰에는 커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비트윈'을 깔았다. 둘만의 대화와 사진들이 쌓여갔다. 기념일 선물과 데이트 코스에 관한 대화도 '비트윈'에서 이뤄졌다.

그러다가 헤어졌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의 성격은, 이별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점 하나만 찍으면 '님'도 '남'이 된다던 말, 노랫말이 아니라 내 얘기였다. 돌아서고 나니 관계를 정리해야겠는데, 디지털 흔적이 내 발목을 잡았다. 우선 '비트윈'을 탈퇴하려고 했다. 그런데 계정을 탈퇴하려면 그놈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늘 '자동 로그인'으로만 접속했던 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계정을 탈퇴할 수도 없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연애 중'이란 팻말을 내렸다. 그 사람과 같이 찍었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었다. 이젠 휴대폰 사진첩 차례. 오! 그런데 사진첩만 지운다고 끝이 아니었다.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는 '아이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사진을 지웠다. 또한 자동 백업이 되어 있던 '네이버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세 번째로 사진을 지웠다. 내가 저런 서비스에 동의한 적이 있었나?

어쨌든 내게 세 번이나 추억을 강제로 소환해 준 '애플'과 '네이버'에 경의를 표하며…. '비트윈'의 비밀번호를 힘겹게 찾아낸 뒤에야 계정을 끊을 수 있었다.

드디어 다 지웠다. 씩씩하게 살아가야지, 굳게 마음먹었는데 후폭풍이 왔다.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 나와 스마트한 디지털 기기와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페이스북과 비트윈과 카카오톡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몰래 추억만 보고 싶은 나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기기와의 싸움에서 나는 항상 졌다. 채팅방을 나가버리면 대화들을 다신 복구할 수 없다는데. 고맙게도(?) '비트윈'은 한 달 내에 상대방과 내가 둘 다 복구를 허락하면 추억이 복구된다고 답해줬다. 하지만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달이 지나도 복구를 안 하면 모든 추억은 그대로 사라진다고 했다. 디지털 시대의 우리는 추억에 대한 주권도 없나 싶어 서러웠다.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난 날. 여러 곳에서 호되게 깨졌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울면서 그 사람의 번호를 찍어 전화를 했다. "삐–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통화음을 듣고서야 헤어졌다는 사실이 와 닿았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혼자구나, 그런 사실이 떠올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5살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디지털 공간이든 현실에서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정말 헤어진 것이다.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그녀는 곧 내가 있는 곳으로 와줬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말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봐야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보란 듯이 예쁘게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수야." 그리고 우리는 꼭 껴안고 잠을 잤다. 친구가 내 입에 물려준 닭다리, 그리고 나에게 나눠준 체온. 똑똑한 인터넷 검색창에서 뭐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따뜻한 포옹의 힘이 훨씬 더 컸다.

+ 김주리는?
이제 구글 검색도 안하고 페북도 안 들어가고 카톡 프사도 안 봅니다. 잘 살게요.

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의는 ahrajo@univ.me

Weekly Out Campus

CJ헬스케어
헛개컨디션
UCC
공모전

2015
LOTTE IDEA
공모전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불닭스티커 이벤트

아웃캠퍼스 제2회 명품
TOP100동아리 모집

웅진씽크빅 제1회
웅진북클럽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Gift

여러분께 **독자 선물**을 드립니다

대학내일 지면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대학내일의 다양하고 유익한 기사들을 읽어보신 후 readers@univ.me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지면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매주 1명을 뽑아 '글로시박스'를 드립니다.

글로시박스 전문 뷰티 MD들이 매월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새롭고 트렌디한 화장품 5개를 핑크박스에 담아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16여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글로시박스! 매월 구독료 1만 6,500원으로 4~5만원의 다양한 뷰티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이번 달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가볍지만 도도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www.glossybox.co.kr

GLOSSYBOX

독자 선물 당첨자 발표 김선형(3600) NO.760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Hot issue

대학생만의 특권!

Editor 김주리 juri@univ.me

웅진씽크빅
제1회 웅진북클럽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www.wjbookclub.co.kr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여길 주목하자! 애니메이션, 학습 게임, 어린이 그림책, 웹툰, 스티커콘 총 5개 분야에서 모집하며 총 상금은 3000만원. 수상자는 웅진씽크빅 채용 지원 시 가산점까지 부여된다고 하니, 교육 및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기간 2016년 1월 4일~1월 31일
대상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혜택 분야별 대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웅진북클럽 콘텐츠 탑재 및 작가 활동 기회 제공/공모전 수상자는 웅진씽크빅 채용 지원 시 가산점 부여

CJ헬스케어
헛개컨디션 UCC 공모전

www.cjp.co.kr/event/conditionucc

CJ헬스케어에서 헛개컨디션 UCC 공모전을 열어. 헛개컨디션과 관련된 콘텐츠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CJ헬스케어 이벤트 페이지에 작품 설명과 영상 URL을 적으면 돼. 응모자 전원에게 헛개수 콤보 교환권을 주니 꼭 지원해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일정 2015년 11월 23일 ~ 2016년 2월 29일
주제 100% 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헛개컨디션을 소재로 한 영상
상금 총 상금 1,500만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불닭스티커 이벤트

www.instagram.com/ilovebuldak

불닭볶음면에서 이벤트를 열어. 스티커가 들어 있는 편의점 큰컵불닭볶음면을 사서, 제품에 있는 10종의 스티커를 모아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해. 이때 필수 해시태그 #불닭스티커#불닭볶음면#HOZZI를 잊지 마. 당첨자에게는 스티커 확인 후에 피규어를 배송해준대!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참고.

기간 2016년 1월 17일 마감
방법 큰컵불닭볶음면의 스티커 10종을 모아 해시태그를 붙여 업로드하고, 본 이벤트 게시물에 덧글을 단다.
상품 추첨을 통해 피규어 3종 or 1종을 드립니다.

HR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마감	기타
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겨울 인턴	gift.postech.ac.kr	~ 12.4	연구참여 기간: 2016년 1월 4일 ~ 1월 29일(4주)
대학내일	2016 상반기 대학내일 인턴 공개모집	corp.univ.me/recruit	~ 12.13	근무기간 : 2015년 12월 28일 ~ 2016년 6월 30
KB금융그룹 KB생명	KBAdream 4기 인턴십	www.kbli.co.kr	~ 12.21	KBAdream 수료증 수여 및 수료비 지급 학교/학년/이름 stay6609@gmail.com로 발송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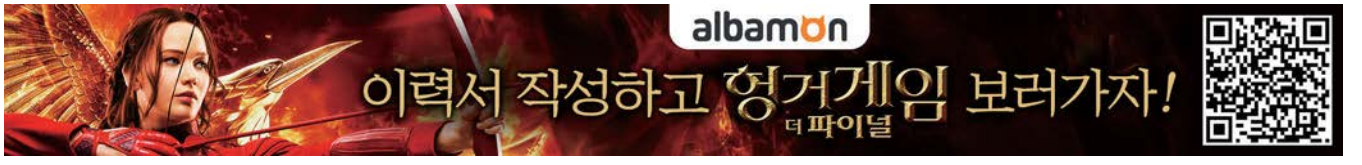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마감	상금
현대백화점	제1회 현대백화점 청춘영상제	UCC	~ 12.6	대상 500만원
네이버포스트	부산 여행 정리 끝판왕 모집 공모전	글	~ 12.6	네이버 페이 100만원
ASUS	2015 ASUS 글로벌 UCC 영상 공모전	UCC	~ 12.15	금상 550만원 및 상장
제주4·3평화재단	제4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시, 소설	~ 12.20	시 2,000만원/ 소설 7,000만원
한진그룹	제7회 일우 사진상 공모전	사진	~ 12.21	올해의 주목할 만한 작가 2명과 올해의 특별한 작가 1명 선정
에버랜드 리조트	제2회 에버랜드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그래픽디자인, 상품 아이디어	~ 12.30	대상 500만원
KPR	제13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 1.4	대상 500만원, 대상 수상 팀 팀원 중 1명에게는 KPR 인턴십 기회
제주항공	제2회 제주항공 Refresh 마케팅·광고 공모전	마케팅·광고	~ 1.6	대상 300만원, 국제선 왕복 항공권, 인턴십, 입사 특전
LOTTE	2015 LOTTE IDEA 공모전	아이디어	~ 1.7	대상 500만원, 신입공채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or 인턴십 지원시 인턴십 기회부여
웅진씽크빅	제1회 웅진북클럽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콘텐츠	~ 1.31	총 상금 3,000만원 (분야별 대상 300만원)공모전 수상자 웅진씽크빅 채용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대외활동

주최	활동명	활동기간	지원마감	혜택
현대자동차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2기	6개월	~ 12.4 16:00	매월 개인/팀 활동비 지원, 우수자 해외 취재 기회
Durex Korea	듀렉스 트렌더즈 6기	2개월	~ 12.6	활동비, 차별화된 성교육 커리큘럼, 수료증, 우수 활동자 상금
KB국민은행, 한국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15기	6개월	~ 12.8	왕복항공료, 숙식비, 활동비 전액 지원
EBS	EBS 스토리 기자단 7기	6개월	~ 12.9	홍보활동비, 수료증, 기념품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재)한국방문위원회	글로벌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13기	2개월	~ 12.16	반크 꿈날개 한국홍보자료 킷트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나눔재단	아산서원 제9기 원생 선발	10개월	~ 12.28	워싱턴 DC 또는 베이징 소재 유명 싱크탱크 및 비영리 기관 인턴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서울 MICE 서포터즈	–	연중 모집	활동비, 활동확인서, MICE 교육 참여 기회 제공

강연/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아웃캠퍼스	제2회 명품TOP100동아리 모집	cafe.naver.com/outcampus	~ 12.6	아웃캠퍼스 동아리 가이드북, 홍보패키지 제공, 공간·문화 지원
대학내일	2015 유스마케팅 컨퍼런스	www.ticketlink.co.kr/ product/12246	~ 12.10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구매
삼양식품	불닭스티커 10종 모으고 한정판 피규어 받자!	instagram.com/ilovebuldak	~ 1.17	편의점에서 큰컵불닭볶음면 구입하고 10종 불닭스티커 인증샷 업로드하면 한정판 불닭프렌즈 피규어 증정



Out Campus:

지금, 역대급 공모전이 시작된다!

www.lottecontest.com

제 6 회 LOTTE IDEA 공모전

김정운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에디톨로지〉를 통해 말한다. 오늘날의 '창조'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편집'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일이라고.
올해 제6회를 맞은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은 21개의 롯데그룹 계열사와 21개의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한다.
이제 '창작'은 여러분의 몫이다. Editor 김민정 dodohanlife@univ.me

롯데그룹으로 가는 취업 블루오션

'공모전'부터 '인턴십' 그리고 '취업'까지

'제6회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이 지난 11월 19일(목) 그 성대한 막을 열었다. 이 공모전은 롯데그룹 전 산업 부문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대회로 6회를 맞은 올해는 "Plus(+) Your Idea"라는 새로운 테마로 업그레이드됐다. 따라서 참가자는 롯데그룹 21개 계열사 중 한 곳과 주최 측이 제시한 21개의 트렌드 키워드(복수선택 가능)를 자유롭게 조합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계열사)+에코(트렌트 키워드)'라는 조합으로 '재생용지 사용 캠페인을 통한 친환경 마케팅 방안'을 제안하거나 '한국후지필름(계열사)에 공유(트렌드 키워드)'를 더해 '온라인이나 SNS를 벗어난 삶의 공유'와 같은 감성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식이다. 상은 총 64개 팀에게 수여되며 총 상금만 해도 1억 3천만원에 규모니 혜택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역대급! 수상자 전원에게는 롯데그룹 21개 계열사 입사 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인턴십 기회를 부여한다. 롯데그룹 공모전부터 인턴십 그리고 취업까지. 잘만 하면 롯데그룹으로 가는 취업 블루오션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다. 작품 응모에 앞서 지난 수상자들의 공모전 수상 비결부터 함께 도전할 공모전 친구 찾기까지! 진짜 공모전 고수들은 꼭 간다는 사전설명회도 개최하니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참석해도 좋겠다.

EVENT 01

공모전 소식만 공유해도 엔제리너스 기프트콘이 와르르~!

11월 19일(목)부터 30일(월)까지 SNS를 통해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 엔제리너스 커피 기프트콘이 쏟아진다!

EVENT 02

전년도 수상자들의 수상 비결이 궁금하다면?

11월 19일(목)부터 30일(월) 오후 7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lottecontest.com)를 방문하면 12월 2일(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사전설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2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INTERVIEW

LOTTE Triple Crown의 주인공,
+
김.동.하

"작은 기회를 잡으면 더 큰 기회가 와요"

▶ 제3회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백화점 부문수상
▶ 2014 롯데백화점 동계 인턴사원 합격
▶ 2015 롯데백화점 신입사원 입사

처음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모전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덜컥 예선에 합격한 거예요. 이후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고, 기적처럼 본선 수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롯데백화점에서의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고 싶어 수상 특전 중 하나인 인턴십에 도전했어요. 동기들은 대부분 저보다 스펙이 뛰어났고 그게 동기유발이 돼 뭐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인턴활동이 끝난 뒤 임원 면접을 봤는데 공모전 PT때와 달리 현실가능성이나 전문성을 위주로 질문을 받았어요. 어려운 자리였지만 공모전에서 사전 연습을 해본 덕인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우연히 시작한 공모전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물론 공모전 수상 이후 인턴사원 활동, 채용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쉬웠던 것 아니에요. 매순간이 서바이벌에 가까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저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어줬어요. 합격이 주는 짜릿한 성취감도 좋았고요.
취업이 어려울 시대일수록 자신에게 더 경쟁력이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전하며 영리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길 바라요. 작은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만이 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6회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모집 요강

지원 자격
누구나 참여 가능 / 개인 또는 팀(최대3인)

참가 회사 롯데그룹 21개 계열사
식품 부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음료BG), 롯데푸드, 롯데리아
관광·서비스 부문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롯데정보통신
유통 부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롯데홈쇼핑
유화·건설 부문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기공,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한국후지필름
금융 부문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응모 주제
롯데그룹 계열사 21개 중 택1 + 트렌드 키워드 21개 중 택1 or 복수 선택 후 조합
※ 개인 또는 한 팀 당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Trend Keyword 보기
옴니채널, 이노베이션, 사물인터넷, 시너지, CSV, 엑티브시니어, 캐릭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맨플루언서, 아웃도어, HMR, 저성장, 스마슈어, 모루밍족, 패션, 모바일, 이머징, 생활가전, 에코, 공유, 핀테크

시상 내역
대상 500만원 총 1팀
금상 300만원 총 21팀
은상 200만원 총 21팀
동상 100만원 총 21팀

채용 우대 사항
※ 신입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or 인턴십 지원 시 인턴사원 활동 기회 부여
※ 지원시기 제한 없음(우대사항 중복 선택 불가)

응모 일정
접수 2015. 12. 1(화) ~ 2016. 1. 07(목) 17:00 限
예선 발표 2016년 1월 중
본선 심사 2016년 1월 말
시상식 2016년 2월 초
※ 홈페이지 내 공지 및 개별 연락
※ 상기 일정은 공모전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lottecontest.com
(오프라인 제출 불가)

문의 사항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사무국(02-735-9540)
※ 행사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주최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LOTTE

2015년 던킨도너츠의 크리스마스 선물

올 겨울엔 가스파드와 리사가 따뜻한 마음과 동심을 선물할 거예요. Editor 황혜원 fwaang@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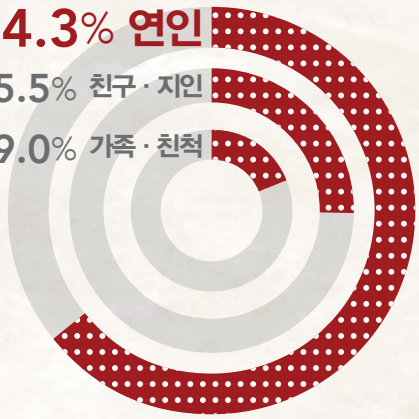
Gaspard
가스파드
까망 털에 파랑 머플러가 매력적인 가스파드! 리사가 벌인 크고 작은 사고를 처리하는 든든한 해결사지만 똑같이 응석을 부리고만 싶은 어린 아이다.

Lisa
리사
쓰다듬고픈 마음이 절로드는 뽀얀 털에 빨강 머플러가 특징인 리사. 호기심 많아 여기 저기서 사고를 치지만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귀요미 캐릭터.

진심을 담아요! 가스파드&리사의 크리스마스

던킨도너츠는 12월을 맞아 프랑스 인기 동화 주인공인 '가스파드'와 '리사'를 크리스마스 캐릭터로 선정했다. 순수한 아이들을 반영한 두 캐릭터를 통해 잃어버린 동심과 따뜻한 아이들의 마음을 느껴보자는 취지다. 비옷 없이 자전거를 타는 선생님에게 욕실 커튼으로 만든 비옷을 선물하는 가스파드와 리사의 이야기는 선물이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가스파드와 리사처럼 연인과 친구,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올 크리스마스,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던킨도너츠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도넛 8개 이상 또는 가스파드 · 리사 브라우니 구매자에 한해 가스파드, 리사 쿠션을 3,000원에 판매한다. 2015년 11월 27일(금)부터 소진 시까지 판매 되며 앙증맞은 전용 캐리어가 구매욕을 불러일으킨다.

던킨도너츠의 2015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도넛은 '봉쥬르 가스파드', '쥬뗌므 리사', '빨간코 루돌프', '콧대 높은 스노우맨', '초코 숲 속 크림치즈', '겨울엔 민트초코'까지 총 6가지로 겨울 시즌에만 한정 판매된다. 달콤한 바바리안 필링이 들어간 초코 도넛 '봉쥬르' 가스파드'와 진한 가나슈 필링의 '쥬뗌므 리사' 등 크리스마스 캐릭터 도넛은 골라먹는 재미를 준다. 여기에 부드러운 생크림을 활용한 '가스파드 브라우니'와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코크림을 이용한 '리사 브라우니'는 12월, 다양한 모임에서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봉쥬르 가스파드

쥬뗌므 리사

콧대 높은 스노우맨

빨간코 루돌프

겨울엔 민트초코

초코 숲 속 크림치즈

리사 브라우니 가스파드 브라우니

DUNKIN' DONUTS × Gaspard et Lisa
©2015 Anne Gutman & Georg Hallensleben / Hachette Livre

CJ CHEILJEDANG

아직도?
이젠 연어지

100%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
맛있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담백한 맛 | 첨가물 0% | 세계10대 슈퍼푸드 연어

참 좋은 업그레이드
ALASKA SALMON
알래스카 연어

알래스카 연어는 100% 자연산 연어, 대두유, 정제수, 정제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선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8

2015.**11.5** Thu ~ **12.31** Thu 대학로 **마당세실극장**

화~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4시, 7시** / 일요일. 오후 **4시** • 12월 24일 : 5시, 8시 / 25일 : 4시, 7시

예매 및 문의 : 동화가 꽃피는 나무 DH COMPANY • 전화 : 02.905.2224 cafe.naver.com/playramyeon • 인터파크티켓

작.연출. 김두환 | 조연출. 최치환 | 프로듀서. 배은욱 | 음향감독. 박정근 | 조명감독. 이승호 | 무대디자인. 이경수 | 기획. (주)엠에스에스비즈니스·신동선·지훈

배우. 이상민, 이경민, 권정현, 방현주, 서태이, 김민태, 윤혁진, 한이연, 한경수, 류현주 | 협찬. Coréana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에서 주관하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공연입니다.

드디어 〈검은 사제들〉을 봤습니다. 공포영화 못 보는데, 이게 뭐 공포영화겠어, 라며 봤다가 놀라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오네요. 이 무서움 잊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sk anything

소설가 최민석씨가 20대 독자들이 보내온 사연에 답변 비스름한 것을 드립니다. 인간관계, 진로, 외모, 취향 등등 그 어떤 고민이라도 메일로 보내주셔요.
고민 당첨자(?)에겐 메일로 '당신의 고민이 다음 주에 실릴 예정이오'라며 알려드리고, 기사는 익명으로 나갑니다.
고민 메일은 gomin10000@naver.com

+

소설가 최민석씨는?

2010년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고 등단. 2012년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쓴 책으로는 『능력자』 『풍의 역사』 『쿨한 여자』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 등이 있다.

질문자님의 고민을 공감하기 위해 저도 방금 〈검은 사제들〉을 보고 왔습니다. 강동원의 다리가 정말 길더군요. '내가 강동원처럼 태어났더라면 소설 따위는 쓰지 않았을 텐데…' 하며 봤습니다. 질문자님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라 하여 저는 잔뜩 각오하고 봤습니다만, 어찌 된 영문인지 영화가 그 정도로 무섭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 풍파에 찌들어 제 영혼이 너무 둔감해진 게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이 고민 코너에 성실히 답하고자,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질문자님이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혹시, 고양이를 무서워하시나요? 영화에는 정말이지 고양이가 잔뜩 나오더군요. 저는 작년에 아는 후배 소설가가 갑자기 세부로 여행을 가겠다며 고양이를 맡기는 바람에 일주일간 고양이와 동거를 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무섭지 않더군요. 간혹 불 꺼진 방에서 저를 노려보는 눈동자 두 개가 허공에 떠 있는 걸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럴 때 불을 켜보면 꼭 고양이가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안겨 체온도 올려주고, 앞발로 안마도 해줘서 이 정도면 함께 살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김윤석의 표정이 무서웠던가요? 〈타짜〉에서 아귀 역할을 맡았을 때, '아아. 이 배우 정말 무섭구먼' 하고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지린 게 아닌지 속옷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벌써 십 년 전이네요. 그간 김윤석 배우도 〈완득이〉에서 담임선생도 하고, 〈도둑들〉에선 김혜수에게 자신의 순정을 오해도 받으며 고생했으니,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영화 속에 악령이 들어간 새끼 돼지가 무서웠나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아, 새끼 돼지는 저로서도 정말 무섭더군요. 앞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의 혼령에게 해코지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될 만큼이요.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쓰다보니까, 〈검은 사제들〉이 정말 무서운 영화라는 사실에 절감하고 말았네요. 여대생의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아주 못된 영화였군요. 무서워서 잠이 안 올 때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남자친구가 없다고요? 그럼, 만만한 선배나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일단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 뒤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혐오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의 됨됨이와 본질적 행복을 논하기에 앞서, 금전적 이익과 경제적 상황만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고백을 주저 말고, 거부의 공포에 굴하지 마세요.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느껴질 두려움에 당당히 어깨를 펴고 할 말을 해보세요. 할 일을 해보세요. 이야기가 너무 벗어났네요. 정리하자면, 세상엔 영화보다 무서운 게 많답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하고픈 대로 꿋꿋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코코아를 마셔보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제 소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소설은 상당히 지루해서,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 이만 자러 갑니다. 아흠.

네이버 1위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Cafe.naver.com/dokchi 네이버 취업카페 1위 독취사(15년 11월 기준)

독취사로 취업 바늘구멍을 뚫어라!

우리학교선배
삼성합격
자소서 보러가기

이것저것
해봤더니
별거없지
이젠여기
영현대로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2기 모집

• 모집 대상 : 국내 거주 재(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 모집 기간 : 2015년 11월 16일 ~ 2015년 12월 4일 16:00 까지
• 활동 기간 : 6개월(2016년 2월 ~ 2016년 7월)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절차 : 서류전형 > 미션제출 > 면접전형 > 최종선발 • 활동 내용 : 현대자동차 및 그룹 관련 행사 취재 및 홍보, 20대 공감 카 라이프 트렌드 발굴 및 콘텐츠 제작
• 활동 혜택 : 매월 개인/팀 활동비 지원, 우수자 해외 취재 기회 • 지원 방법 : 영현대 사이트 http://young.hyundai.com 참고 • 문의 : young@hyundai.com / 02-6959-1745

HYUNDAI |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